

대한민국 최대규모 창업 상담 전시회

2018 하반기

프랜차이즈 서울

<IFS 프랜차이즈 서울만의 강점 TOP 5>

1. 매회 역대 최다 참관객 방문 예정
2. 실창업 수요가 높은 퀄리티 참관객
3. 업계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회!
4. 도/소매 서비스부터 컨설팅, 설비업체까지 창업 관련 모든 아이템이 모이는 전시회
5. 전시회 사전, 현장 그리고 사후에도 지속 연계되는 온라인 홍보!

전시명 제 43회 프랜차이즈 서울

장소 코엑스 C홀

기간 2018. 10. 18(목) - 20(토)

규모 250개사 500부스, 예비창업자 약 20,000명

주최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주관 **coex** Reed Exhibitions®

참가문의 ▶ IFS 프랜차이즈 서울 전시 사무국

www.franchiseseoul.co.kr

Tel: 02-6000-1564, 1562, 1565

Email: ifs_info@naver.com

프랜차이즈월드

2018 JULY - Vol.35

국제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동남아에 집중하는 10가지 이유

Korea Franchise Association

Franchise WORLD

2018 JULY - Vol.35

Cover Story

프랜차이즈 업계 뒤흔드는 공연권료 소급 논란

Special Report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포럼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대회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대폭적인 개정 필요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영계 '반색' 근로시간 단축도 6개월 계도 기간

Guide Post

한국 2030 사로잡은 日流 스시 먹고 일어 배우며 젠스타일 추구

Column

김종무 변호사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돼야 ...

People & Company

티바두마리치킨 유상부 대표
(주)이엔이 고성호 대표



아연수

물을 바꾸면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
물을 바꿔야 건강해집니다.

필수미네랄 아연을 이온화시켜
공급해주는 **ENSoo**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2018년도 제33기

프랜차이즈CEO 과정 모집



상남경영원의 교육 체계는 수평적, 참여적이며 팀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교육방안을 통해 현장에서의 업무 능력 향상과 직결되는 사고능력을 향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수한 커리큘럼

- 세계적인 교육기관 : 2017년 FinancialTimes 72위(국내1위), 최고의 강사진
- 프랜차이즈 업종에 특화 및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무형 강의제공
- 프랜차이즈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업계/학계의 검증된 강사진 배정
- 대학교의 연구 및 교육 경험과 실무경험이 결합하여 균형있는 경영자 교육제공
- 철저한 강의 평가제 시행을 통한 우수 강사 배정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 17년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프랜차이즈CEO 특화프로그램
- 국내외 다양한 업종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원우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의 지속적 성장 확보
- 국내최고의 강사진(교수진 및 외부전문가)과 합습을 통한 교류 및 자문 기회

교육혜택

- 연세대학교 총장명의로 수료증 수여
-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장 명의의 시상 (공로상, 최고경영상 등)
-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A/S 특강 초청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이용
- 국내 워크샵 지원
- 상남 경영원 객식 이용 할인 혜택
- 간담회 및 다양한 원우회 활동 참여
- 연세대학교 기념품 및 무료 주차권 제공



다양한 행사 기획 및 제공

교육참가자 단합 및 네트워크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제공합니다.



제33기 프랜차이즈CEO 과정 모집요강

교육과정	제33기 프랜차이즈 CEO과정
교육기간	2018년 9월 ~ 12월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7:30
교육장소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서울 신촌 캠퍼스)
교육인원	30명 내외
지원자격	제조, 유통, 외식 및 서비스업의 EO 및 임원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및 임원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 희망자 (프랜차이즈 Developer)
전형방법	서류 전형을 통한 수강 능력 심사 후 선착순 입학 결정
지원안내	상남경영원 홈페이지(http://sim.yonsei.ac.kr) 에서 수강신청
합격안내	온라인 지원 후 1주 이내 개별 E-mail 및 SMS 통지
접수기간	2018년 8월 22일(수) 오후 6시까지 (선착순 마감)
등록기간	2018년 8월 24일(금) 오후 6시까지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상남경영원 홈페이지에서 작성) 2) 사진 (지원서 작성 시 파일 첨부) 3) 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직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등록금	580만원 (강의, 교재, 기념품, 간식 등 교육관련 비용 및 해외연수비용 포함) * 기졸업생 추천할인 있음
입금계좌	우리은행 126-000091-18-322 (예금주:연세대학교)
※ 상기 모집요강 내용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청정농장으로부터
당신의 식탁까지,
고품질 냉동감자를
해마로푸드서비스(주)가
제공합니다.

GAP인증을 받은 농부의 감자로만 생산합니다.
국제 표준 식품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국제 식품 위생 기준 마크를 획득하여 안전합니다.



국가대표 식품자동포장기

Enterpack®



깔끔하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식품 포장, 판매 프랜차이즈의 든든한 파트너!!



대표번호 031-434-9020

www.enterline.co.kr

NSF: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미국 위생협회 승인



www.enterline.com

식당밥 무조건 맛있어야 맛집이다!

업소용 전자동솔밥기계

디지털 아궁이

전 세계 유일의 초벌 기능 탑재
24개월 무이자 할부 시스템

• 바쁜 점심시간에 최적 •

초벌 기능, 데우기 기능으로 4분 만에 완성
12구에서 점심시간 200그릇 가능

• 전자동 시스템 •

1~4인분까지 버튼 한 번이면 완성
진밥에서 꼬슬밥까지 완벽

• 식당 상태에 맞게 •

1구~25구까지 크기와 디자인 자유롭게 변경

• 구입 부담은 적게 지원은 많게 •

기기값 전액 24개월 무이자 할부, 렌탈시스템

• 평생 A/S 보장 •

구매 시 현수막, 배너, 온라인 홍보 지원



가족애 디지털아궁이 1544-7871

SUNPLAZA “다수의 사업분야에 진출 하고 있는 외식 창업 토탈 서비스 제공”

썬프라자는 오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호텔, 리조트, 군부대, 관공서, 프랜차이즈, 단체급식장 등의 상업용 주방용품과 설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외식 창업 토탈전문기업 입니다.



• 사업분야

- ▶ 업소용 주방설비도소매 및 제조
- ▶ 업소용 주방용품 및 잡화류 일체
- ▶ 업소용 그릇 (도자기, 엘라민 등 일체)
- ▶ 외식 프랜차이즈 납품전문 (PB화 제작가능)
- ▶ 단체급식, 관공서, 학교, 군부대, 교회, 호텔, 부페, 식당 납품전문 (조달청 등록업체)
- ▶ 외식업 창업지원 컨설팅 (주방, 인테리어, 도면제작, 인허가 사항 등)

• 썬프라자 만의 남다른 경쟁력

- ▶ 조달청(나라장터)등록 업체로 공신력 있는 제조 및 물품 구매대행 서비스 제공
- ▶ 프랜차이즈 납품 전문 프로세스 구축 (본사만의 특화상품 개발, 발굴 / PB화 가능)
- ▶ 도면 무료견적 서비스
- ▶ 학교, 관공서 후불제 시스템도입
- ▶ 브랜드 메뉴에 맞는 주방용품 & 설비제안
- ▶ 인테리어 업무 공유로 최적의 주방시스템 구축가능
- ▶ 중고 주방기기 매입 및 철거 서비스 제공
- ▶ 기성 제품을 원하는 형태로 변형제작 서비스
- ▶ 주방용품, 주방설비, 의탁자, 불박이 까지 제작 설치가능
- ▶ 전국단위 실시간 납품시스템구축(제주도, 울릉도 등)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독산동길 43(매산리)
TEL : 070-5003-3990~94 / FAX : 031-768-9779



관심은 키오스크를 찾으시나요?

인건비 부담은 낮추고
매출은 올리는 현명한 선택!!



성진 키오스크의 가치

제작-생산-판매-A/S까지 고객맞춤컨설팅
최상의 제품을 저비용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성진 키오스크의 기술력

벤처기업인증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25년 노하우를 가진 키오스크 연구팀이
차별화된 키오스크를 제공해드립니다.



성진 키오스크의 솔루션

고객 니즈를 담아 최적화된 [자체개발 외식전문 포스트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맞춤형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똑똑한
성진에이에스
키오스크 포스트

업무 효율은 Up

인건비는 Down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3길 87 성진빌딩 | www.sjpos.co.kr | 1588-6631

더 맛있어진 커피베이에서 4,080만원으로 카페 창업 (8평 기준)



커피베이는 국내에만 45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국내 대표 카페 브랜드로 성장하고, 미국의 대표 유통기업인 월마트와 입점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브랜드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과 달콤한 디저트를 만날 수 있는 커피베이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창업의 꿈을 이뤄보시기를 바랍니다.

카페 창업은 역시 커피베이!

- 합리적인 창업 비용
-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 자체 로스팅 플랜트
- 아라비카 100% 원두 사용
- 트렌드를 선도하는 신메뉴 출시
- 적극적인 본사 마케팅 지원

COFFEEBAY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제작지원합니다.

한식에 대한 새로운 발상 국내최초 3색요리시대

사월에 보리밥과 짬뽕미

마음껏 보리비빔밥
얼큰미나리칼국수
수제함흥비빔냉면

사월에 보리밥 메뉴 **7,700원**

마음껏 보리비빔밥
짬뽕미볶음
고르곤졸라피자
수제함흥물냉면

사월에 짬뽕미 메뉴 **9,900원**

밥 반찬 중심의 평범한 한식이 아닙니다.
한식도 요리처럼, 1가지 메뉴에 '3색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초가성비 요리한식~
사월에 보리밥과 짬뽕미로 성공창업을 시작하세요.

✓ 사월에 보리밥과 짬뽕미의 핵심경쟁력

- 풀잎채 20년 한식의 노하우를 담다
- 보리밥+짬뽕미, 고수익 명콤비의 만남
- 짬뽕미+피자+냉면을 한번에 즐기는 3색 요리 초가성비 메뉴경쟁력
- 푸드코트식 셀프배식 셀프퇴식으로 20%의 혁신적인 인건비 실현



앞서가는 베이커리를 위한 최적의 베이킹 시스템
토탈베이커리시스템이 함께 합니다.

유럽 최고의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와 함께하는 (주)토탈베이커리시스템은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고품격 베이커리 시스템을 요구하는 호텔 및 레스토랑, 베이커리, 양산 및 준양산 공장, 학교, 캐터링 등에서 전문적인
 기술로 신뢰받는 (주)토탈베이커리시스템이 다양하고 선진화된 최상의 시스템을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신 시스템의 컨설팅에서 부터 설계, 장비까지 완벽하게 제공하여 드리는 토탈베이커리시스템으로 앞서가는 베이커리를
 위한 최상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버티컬 믹서 전문 브랜드(덴마크)		 ■스파이럴 믹서 전문 브랜드(이태리)	
 ■디바이더 라운더 전문 브랜드(네덜란드)		 ■자동디바이더 라운더기 전문 브랜드(이태리)	
 ■초코렛 제조기 전문 브랜드(이태리)		 ■페스츄리 및 제빵라인 전문 브랜드(독일)	
 ■쿠키데포지터 전문 브랜드(이태리)		 ■오븐 전문 브랜드(독일)	

NAVER 토탈베이커리시스템



PROFESSIONAL COMBI MASTER & BAKERY OVEN



VENICE STYLE, EMOTION & INNOVATION



■ 커스터마이징 디자인 & 로고
 고객 커스터마이징 상품 제공.
 (기계 성능, 오븐 디자인, 로고, 쿠킹레시피 제공)

VENIX는 전세계적으로 오븐 장비와 쿡&칠러(Cook&Chiller) 시장에 탄탄한 경험을 구축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네치아의 창의력, 예술가 정신을 바탕으로 발명, 발견, 국제 무역으로 세계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베닉스는 혁신적인 정신 위에 "베네치아 상인들"의 오랜 역사적, 문화적 바탕에 뿌리를 두고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제조 기반의 회사입니다.

|주베닉스코리아 상담문의 : 02-848-8856

www.venixkorea.com

디자인가구 아르푸 ARTU FRANCHISE FURNITURE

아르푸는 2000년에 설립한 KTA의 브랜드이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창업가구) 주문제작가구 회사입니다.

창업가구

프랜차이즈
카페
음식점
레스토랑
편집샵
헤어샵

숙박가구

호텔
모텔
펜션
리조트
고시원
산후조리원

주문제작

공서
전시장
병원
컨벤션
연회장
인테리어가구

SHOW ROOM



FACTORY



중국 직영공장

한국 직영공장

베트남 직영공장



KTA 한국TA

T.O.P 탁오피

ARTU 아르푸

Factory KTA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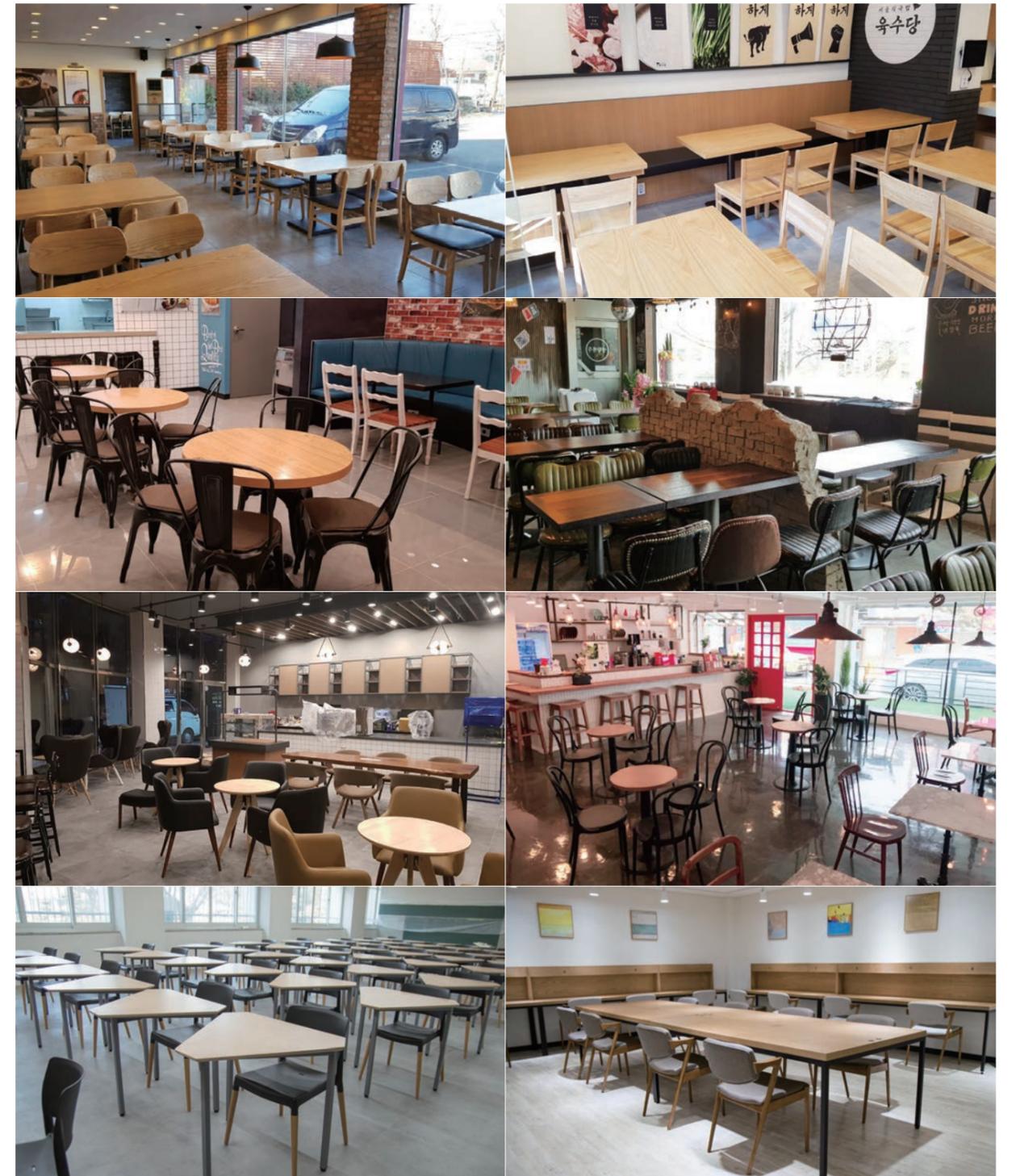
Factory KTA VINA

디자인가구 아르푸 ARTU FRANCHISE FURNITURE



대표이사 황은주

PORTFOLIO



쇼룸 서울 강남구 학동로 11길 6 (주)에땅빌딩 1층 아르푸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 106번길 62

SITE www.arfu.co.kr
TEL 1577.6190 FAX 02.540.1083



GEOSUNG CHICKEN
거성치킨 맛있다!

거성!
 치킨을 인격화하다



**거성치킨 대한민국 최저가
 창업지원 이벤트!(홀+배달)**

**거성치킨의
 차별화된 경쟁력!**

- ☞ 인테리어 평당 90만원 (평당150만원→90만원)
- ☞ 가맹비 500만원 → 200만원
- ☞ 거래보증금 200만원 → 100만원
- ☞ 월로열티 평생면제!
- ☞ 교육비 200만원 → 100만원
- ☞ 무이자대출 3,000만원

- ☞ 상권, 입지, 고객층에 따라 1:1 맞춤식 창업 프로그램 운영
- ☞ 물류공급가격 연동제 시스템 운영
- ☞ 동종업계 최저수준의 물류공급가격
- ☞ 물류센터 1일 배송시스템
- ☞ 20년 프랜차이즈 경험과 노하우
- ☞ 하자보수 이행증권 의무발행

▶ 총 창업비용 : 3,450만원

거성치킨 소자본배달전문매장 창업지원이벤트 **본사창업비: 535만원**

서울 | 사당점 학동점 강남점 서울숲푸르지오점 답십리점 혜화점 미아점 고대중앙점 망원점 신림점 영등포점 오류점 당산점 경기 | 김포중앙점
 소사본동점 부천삼정점 부천약대점 양평역점 금정역점 용인죽전점 안양일번가점 파주와동점 범박점 인천 | 영종하늘도시점 청라점 당하점 간석점 동인천점
 기타 | 부산명지점 부산좌동점 부산대연점 제주노형점 제주아라점 제주연동점 대표항점 대구평화시장점 거제육포점



가맹점문의 **02-586-2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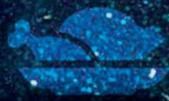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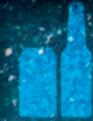
하이트진로



시원함이 활짝!
**EXTRA
 COLD**

경고: 지나친 음주는 퍼블릭, 기어터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창업!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진
못합니다! 

CHICKEN & BEER & PLATE

저키인이 맛있다!



창업문의
1588 
5592

외식 프랜 그룹 F&DYSAY  <http://www.babos.co.kr>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44-4 형석빌딩 4층 Tel : +82.2.454.9292 Fax : +82.2.2201.5211
JeongSeok B/D 4F, 1044-4, Sadang-dong, Dongjak-gu, Seoul, Korea, 07025



CASS
FRESH



새로운 모습으로 부딪쳐라!
짜릿하게! 카스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에어컨 세척시 **절감**되는 요금
약 20%~27%
(외국 테스트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로 건강하게!
클리닝 서비스로 청결하게!

에어컨 세척관리

System A/C Maintenance



✓ 시스템에어컨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작동을 시켜도 시원하지 않다.
-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있다.
- 바람에서 곰팡이 냄새 및 악취가 난다.
- 전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 실내 먼지가 많다.
- 건강이 염려된다.
- 발병원인이 되는 에어컨 내부세균 때문에 고민이다.

전국 에어컨 세척비용 동일
(주)크리니트 1566-3696

Clineat[®]
THE BEST CLEANING SERVICES

Office DEPOT
오피스디포
문구·사무용품 대표기업

상담문의 02)2054-1012~3



브랜드 전환 및 신규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오피스디포 본사가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프로그램

임차보증금 지원 프로그램이란?
소매시장 진출 시 우수한 상권에서
중대형 매장을 임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 오피스디포 본사에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대상 ✓ 브랜드 전환 또는 2호점 오픈을 희망하는 경우
✓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규모 1억 ~ 1.5억 원

지원방식 오피스디포 본사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신규 가맹점과 오피스디포 본사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원



오피스디포와 신한은행이 함께하는 신한은행 프랜차이즈론

프랜차이즈론이란?
신한은행과 협약이 체결된 우량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하는
가맹점주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서
✓ 신규 창업 희망자에게는 창업 자금을,
✓ 기존 매장에는 운영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

지원규모 최대 1억 원

적용금리 최저 3.64%
(개인 신용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	✓ 신규가맹점	✓ 기존가맹점
	임차보증금이나 인테리어, 기계 & 기구 구입비	매장 리모델링이나 물품 구매 등과 같은 운영 자금

※ 신한은행 대환대출 상담 프로그램:
프랜차이즈론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기존 가맹점 대표에게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 및 더 저렴한 금리로 변경 가능한 대환대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함

母樂 母樂!

엄마의 사랑이
모락 모락 피어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 온 김가네
내 가족이 먹는 김밥이란 생각에 신선한 재료를 선별
건강한 요리법으로 먹거리의 행복을 전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23년간 달려 왔습니다.
김가네는 맛있는 행복, 건강한 맛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요리에는 엄마의 정성이 있습니다

김가네

가맹 문의 **1588-7187** www.gimgane.co.kr

코리아안바베큐 KOREAN BARBECUE



20년간 정직과 신뢰의 치킨정신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룹런브랜드로 이끌다!

코리아안바베큐는 실전 경험을 통한
안정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창성과 특유의 기술로 가맹점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독보적인 사업임을 자부합니다.



전속모델
양준혁

코리아안바베큐의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080-208-9292



Since2001

티바두마리치킨 신메뉴출시

NEW 양심치킨

양파와 닭안심의 만남!
부드러운 닭안심 위에
아삭한 양파의 새콤달콤한
크리미 양파소스가 한가득!



NEW 119불양념

입안 얼얼 눈물 뚝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진정한 불맛!



NEW 국물떡볶이

짙한 국물맛이 중독성있는
신당동할매가 울고갈 그 맛!



티바두마리치킨의 5가지 경쟁력

- 불황에 강한 가성비 끝판왕
- 100% 국내산 닭고기 사용 (순살포함)
- 소스, 파우더 등 핵심 품목 자체 생산 (원가 절감)
- 화성, 강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지역 자체 물류망 구축
- 최적화된 딜리버리 시스템과 매뉴얼 및 18년 성공 노하우 제공

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세월의 깊은 맛은 우리땅에서
정성들여 키운 **건강식재료** 덕분입니다.

3년 묵은치



정예 근무인력
간편내외 주문함에 준비

무청시래기
최대 1kg 포장 판매 가능

최근 3개월 오픈 가맹점

인천 옥련점, 경북 구미송정형곡점, 경기 부천삼곡점, 경기 용인중앙점
충남 대천해수욕장점, 충남 아산배방점, 서울 면목1호점, 경남 창원
중앙용지점, 충남 보령점, 대구 산격점, 경기 고양풍동점, 대구 율하점
대구 시지점, 충남 천안쌍용점, 경기 일산백석점, 경기 파주통일동산점
경기 일산대화점, 강원 화천산양점, 경기 부천괴안점, 경기 파주금촌점
울산 반구학성점, 충남 천안신방점, 세종 조치원점(예정), 목포 상동하
당점(예정)

무료상담 전국 300여개 가맹점 배달중

1522-2637

전문 상담원이 빠르고 친절하게 24시간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이바들 외식 Family



이바들 감자탕





100% 천연펄프로 환경친화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최고급 펄프원단을 사용하여 식탁의 문화를 선도하는 냅킨을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제품의뢰

컨설팅

디자인

인쇄

패킹 및 적재

납품

“따뜻하게 지켜줄게”

보온팩 이중용기로 마지막 한점까지 따뜻하게



새싹쟁반무침면

반반족발

모듬보쌈



원쌈만의 보온팩 이중용기

가장 맛있는 보쌈은 따끈따끈한 보쌈이죠!
원할머니 보쌈은 보온팩이 들어간 이중용기로
언제 어디서나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한 보쌈을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친환경 디지털 복합기 렌탈 전문기업



(주)보스테크

디지털 복합기 분야,
최고의 재제조 Recycling 기술로
(주)보스렌탈는 저렴한 비용과
높은 효율성의 디지털 복합기 렌탈서비스와
친환경 자원재생 Total Solution을 선사해드립니다



고객만족 렌탈 서비스

납품 및 설치 후 카운터 자동 검토,
에러나 종이 걸림, 토너 잔량 등의
정보를 원격시스템 통해 복구
지원제공, 해피콜을 이용한 다양한
고객의 소리 모니터링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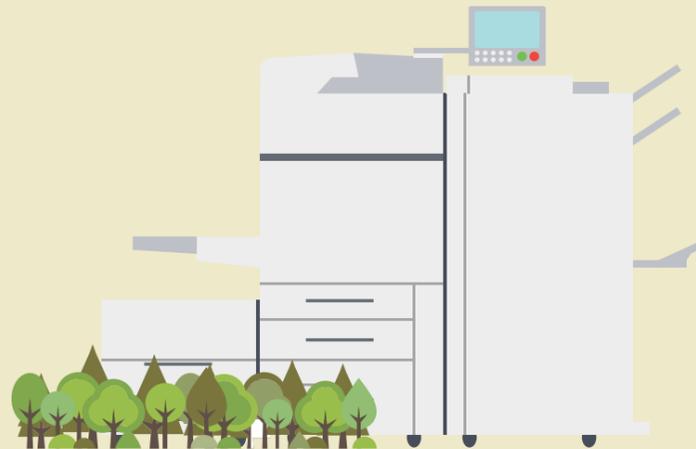
친환경적 렌탈 서비스

국내에서 렌탈 기한 만료한 디지털
복합기를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수출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인 산업 폐기물 제로를
실천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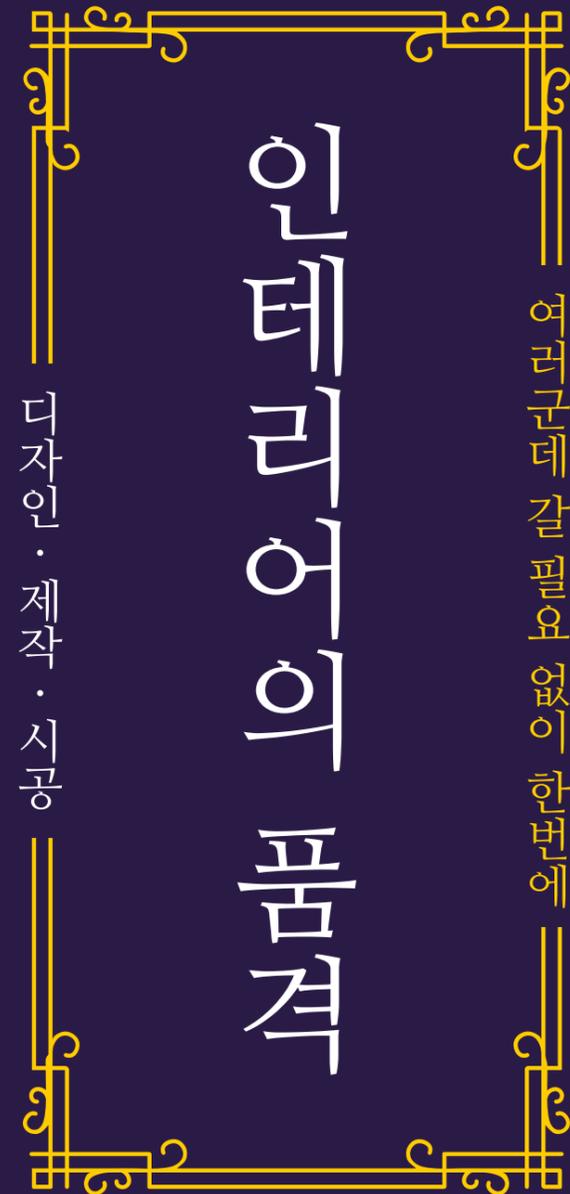
튼튼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렌탈 서비스

최신 기술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사무환경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는 기업



(주)보스렌탈는 재제조 제품과 함께 신제품 렌탈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2017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대상 / 2018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선정
경기도 하남시 감북로 54 (주)보스렌탈 | 02-472-6544 | www.ebosstech.com



디자인 · 제작 · 시공

Design · Interior · Sign 전문기업



본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56
공장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가시내길 18

상담문의 010-2368-0818
02-2642-0362



드림존 '가맹점' 모집

착한 수수료에 감사! 빠른 대금정산에 감사!
놀라지 말고 직접 느껴보세요.



- ✓ 세계 최저 가맹점 수수료 0.5%
- ✓ 빠른 대금 정산 서비스 (익일 정산 송금)
- ✓ POS시스템 설치 무료
- ✓ 더드림페이 결제서비스 이용하는 제휴가맹점
- ✓ 세계 최초 암호화폐 연동페이 서비스



원가는 널뛰고
임대료는 내려오는 일이없고
인건비는 대폭 올라갈 예정입니다.

외식업

키오스크로 인건비를 줄이거나

봉사료

도입을 통해

절세방법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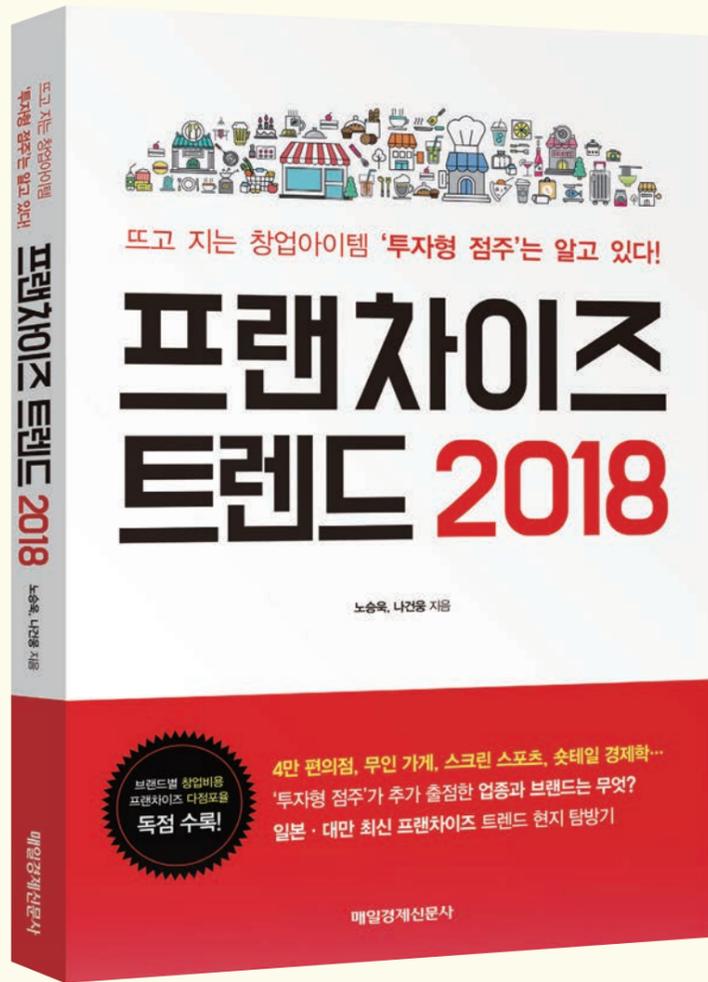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최인용

상담문의 : 02)555-5025 www.gtax.kr

2018년 가장 잘 나갈 프랜차이즈는?

대박가게 점주들만 아는 뜨고 지는 창업 아이템 대공개!

- 면적당 매출로 계산한 잘 되는 프랜차이즈
- 불법 영업이 많은 푸드트럭의 속사정
- 내 돈으로 할 만한 프랜차이즈 분석
- 4차산업혁명이 자영업에 끼치는 영향
- 인건비를 줄이는 프랜차이즈 운영법
- 일본, 대만의 프랜차이즈 트렌드는?



올 한 해 프랜차이즈 흥망성쇠와 2018년 유망 프랜차이즈를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트렌드 2018>! 이 책의 무기는 창업 전문 기자들이 다년간 쌓아온 데이터인 '다점포율'이다. 다점포율은 점주 한 명이 2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것을 반영한 지수로,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점포율 외에도 브랜드별 창업 비용과 마케팅 기법, 4차 산업혁명시대 창업 아이디어도 제시해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노승욱, 나건웅 지음 | 15,000원 | 매일경제신문사

2018.6.1(FRI) - 8.31(FRI)

전국민 잡지읽기 공모전

(사)한국잡지협회는 잡지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전 국민의 독서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전 국민 잡지 읽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잡지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다립니다.

유의사항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출품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권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상 후 창작이 아닌 모방 혹은 표절로 밝혀진 경우 수상은 취소되며 상금은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 해당사항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잡지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02)360-0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최** (사)한국잡지협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 대상** 청소년부 - 초·중·고등학생 / 일반부 - 대학생 및 일반인
- 주제** 잡지와 나의 인연(삶)_ 장르불문(수필, 시, 만화, UCC 등)
- 형식** (사)한국잡지협회 www.magazine.or.kr 홈페이지 지정된 형식의 참가신청서 및 작품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접수방법 한국잡지협회 수기공모 담당 이메일 contest@magazine.or.kr 및 우편접수

제출방법 수필 / 청소년부 - A4용지 2~3매 내외, 일반부 - 규격형식의 3~5매 내외 (글자크기 12point, 줄간격 160%, 바탕채) 시/2편, 만화/10컷이상, UCC/1분 이내

접수기간 2018년 6월 1일~8월 31일

결과발표 2018년 10월 5일 (사)한국잡지협회 홈페이지 공지

시상 2018년 10월 26일 (예정)

시상내역

일반부(21명)

구분	종류	인원	시상
대상	문화체육부장관상	1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한국잡지협회회장상	1	상장 및 상금 200만원
특별상	국립중앙도서관장상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특별상	한국언론재단이사장상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한국잡지협회회장상	7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한국잡지협회회장상	10	상장 및 상금 30만원
계		21	

청소년부(19명)

구분	종류	인원	시상
대상	문화체육부장관상(초·중·고등부)	1	상장 및 200만원
최우수상	한국잡지협회회장상(초·중등부)	1	상장 및 100만원
우수상	한국잡지협회회장상(초·중등부)	2	상장 및 50만원
	한국잡지협회회장상(고등부)	2	상장 및 50만원
장려상	한국잡지협회회장상(초·중등부)	5	상장 및 20만원
	한국잡지협회회장상(고등부)	5	상장 및 20만원
특별상	서울특별시시장상(예정)(초·중·고등부)	1	상장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초·중등부)	1	상장
계		19	

* 이 포스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잡지협회
Korea Magazine Association



048



062



066

THE LETTER FROM PRESIDENT

- 035 박기영 협회장 인사말
- 037 이진창 발행인 인사말

COVER STORY

- 038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대상 5년간 공연권료 지불 청구 내용증명 발송
- 042 법무법인 세종,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청구 설명회 '한음저협 공연사용료 요구 내용증명 발송' 대응방안 모색

SPECIAL REPORT

- 044 "가맹사업의 진흥이 진정한 상생 지름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대폭적인 개정해야...
- 048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영계 '반색' 근로시간 단축도 6개월 제도 기간

THEME INFORMATION_ GOVERNMENT ORGAN NEWS

- 052 - 공정거래위원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절차,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등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캐나다 밀과 밀가루 수입 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 특허청 / 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 회의, 제주시 열려 TM5-ID5 중간회의(Mid-Term Meeting) 개최

PEOPLE & COMPANY

- 054 ㈜이엔이 고성호 대표
아연수, "물을 바꾸면 몸이 달라진다"
- 058 티바두마리치킨 유상부 대표
한마리 가격으로 두 마리 제공, 가성비·가심비 모두 충족

GUIDE POST

- 062 한국 2030 사로잡은 日流
스시 먹고 일어 배우며 젠스타일 추구
- 066 글로벌 트렌드
국제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동남아에 집중하는 10가지 이유
- 070 공정
허위 과장 정보제공 여부



놀이만큼 신나는 애착육아가 또 있을까?

아이는 엄마와의 애착을 통해 자아를 키우고, 세상을 배웁니다.
혼자 놀게 하지 마세요, 짐보리 애착육아를 시작하세요.
엄마와 눈을 맞추고, 체온은 느끼고, 함께 바라보는 짐보리 놀이 프로그램이 엄마가 꿈꾸는 행복한 아이로 키웁니다.

짐보리에서 함께 놀아주세요, 애착육아를 시작하세요.



전 세계 45개국 300만여 명 회원이 선택한 글로벌 프리미엄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짐보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비즈니스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 02-6714-2220

BRAND HIGHLIGHT

072 오피스디포, 후쿠오카서 "2018 가맹점 대표자회의" 개최
 김보리/풀잎채/본죽/이연에프엔씨/이바동/크린토피아/디딤/
 채선당/뭇뎠고양이/탐앤탐스/피자알볼로/베스킨라빈스/김가네/바르다
 김선생/쫄스떡볶이/파리바케트/해마푸드서비스/교촌에프앤비/SPC그
 룰 라그릴라/장수돌침대/커피베이/국수나무



COLUMN

080 변호사 김종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되어야...

082 세무사 최인용
 부부의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방법

084 FC산업연구원장 장재남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활성화 시급하다

086 노무사 신항철
 근로시간 단축, 제대로 알자

088 건축가 이상권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간연출을 위한 구성요소 Part 2/2



CULTURE

090 Post Card 흰색은 모든 가능성으로 가득한 침묵 중

092 Travel 국내 강원 인제군-인제 대암산 용늪

ASSOCIATION NEWS

094 Hot Issue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식약처, '식품안전관리 강화'
 MOU 체결

MOVEMENTS

096 협회소식

MEMBERSHIP

100 지회소식 / 협회 신규 회원 및 교육 일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리스트
 협회 일정 및 협회장 동정



자정과 혁신의 본격적인 성과를 요구받고 있는 지금, 변화의 의지 실천해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박 기 영

안녕하십니까 프랜차이즈 산업인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잘 되지 않으신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빠르게 파악하여 하반기에는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제대로 추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취임 1주년 기사를 보다 보면, 제 머릿속에는 파란만장했던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의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1년여 전인 지난해 7월 말, 새롭게 출범한 공정위의 칼날이 재벌로 향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갑작스럽게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은 우리 업계에 소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산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 부문 중 가장 먼저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사상 초유의 위기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억울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산업인 여러분들이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어 큰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가맹본부들이 상생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이에 화답하며 프랜차이즈 업계를 억누르기보다는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긴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사방으로부터 자정과 혁신의 본격적인 성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상생과 혁신을 말로만 외쳐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보여준 변화의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고, 우리의 결의를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올해 계획했던 일의 추진상황과 남은 계획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발표한 자정실천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린 해입니다. 많은 산업인들과 사무국이 함께 중지를 모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월드 제 35호 / 2018년 7월호

발행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기획·제작 (주)KFN(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월헌빌딩
대표메일 kfn1991@naver.com
광고문의 02-556-7889
보도자료 Webhard(ID:kfn1991, PW:1991)
취재·구독문의 02-556-7889 (구독료 10,000원/권)
인쇄 (주)근아인쇄(02-2279-1430)
판매대행 (주)성운도서(031-915-6900)
등록번호 서초, 라11702호

■ 전국 교보, 영풍, 알라딘, 예스24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PUBLISHER
회장 박기영 | Park, Ki Young
발행·편집인 이진창 | Lee, Jin Chang
협회/대외협력실장 박호진 | Park, Ho Jin

EDITORIAL DEPT
국장 신일영 | Shin, IL Young
부장 이동한 | Lee, Dong Han
차장 명한만 | Myeong, Han Man
차장 김지영 | Kim, Ji Yeong
기자 김은영 | Kim, Eun Young
특임 기자 노승욱 | No, Seung Wook
특임 기자 박서진 | Park, Seo Jin

MARKETING
기획실장 최승건 | Choi, Seoung gun

DESIGN
실장 조금단 | Cho, Keum Dan

PHOTO
사진기자 이명철 | Lee, Myung Cheol
사진기자 김동하 | Kim, Dong Ha

CORRESPONDENT
강원기자 손준기 | Son, Jun Ki
광주·전남기자 박내연 | Park, Nae Yeon
대구·경북기자 권오하 | Kwon, Oha
대전·충남기자 박경원 | Park, Kyung Won
부산·울산·경남기자 남구만 | Nam, Gu Man
전북기자 고재경 | Ko, Jae Kyung
충북기자 박성희 | Park, Sung Hee

CONTRIBUTORS
FC 산업연구원장 장재남 | Jang, Je Nam
변호사 김종무 | Kim, Jong Moo
회계사 김상운 | Kim, Sang Woon
세무사 최인용 | Choi, In Yong
노무사 신향철 | Shin, Hang Choon
건축사 이상권 | Lee, Sang Kwon
화가 서정자 | Seo, Jeong Ja

CONSULTATIVE COMMITTEE
편집주간 김영인 | Kim, Young In
수석편집위원 안현진 | Ahn, Hyun Jin
편집위원 신향숙 | Shin Hyang Sook
 김용순 | Kim, Yong Soon
 이상규 | Lee, Sang Kyu



Korea Franchise Association 프랜차이즈월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집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연권료 소급 청구 건 정부와 관계부처, 프랜차이즈 업계 목소리 귀 기울여야

발행인
이진창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연관된 많은 일들 중에 최근에 벌어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료 소급 청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6년8월 하이마트 판결을 근거로 올해 5월말 SPC, 롯데GRS 등 160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난 5년 간의 공연권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음악에 관한 저작권과 공연권에 관한 법은 개정이 되어 올해 8월23일부터 50㎡ 이상 커피전문점,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면 별도로 일정 금액을 공연권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와는 별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지난 5년 간의 공연권료를 소급해서 내라고 청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프랜차이즈업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냥 판결 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생각을 한 건가요.

가맹본사들이 음악을 사용하면서 음원서비스업체에 꼬박꼬박

저작권료를 지불했는데 이제 와서 공연권료는 별도로이니 예전에 음악 튼 것까지 몽땅 한꺼번에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가맹본사에서 우리는 음악을 틀어서 수익을 얻은 것이 없으니 가맹점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면 영세한 개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돈 내놓으라고 요구할 건가요. 혹시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비난 여론을 다 받아들이 각오는 되어 있는 건가요. 틈만 나면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는 정부와 관계부처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고용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가 있는 세상 모든 일에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번 내용증명에 대해 한번만 더 고심하여 프랜차이즈업체를 소송의 대상이 아닌 앞으로 상생을 도모할 파트너로 생각해 준다면 공연권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 소급해서 돈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법 개정이 된 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프랜차이즈업계가 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대상 5년간 공연권료 지불 청구 내용증명 발송

“지난 5년간 카페, 베이커리, 식당,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음악을 틀 것에 대한 공연권료를 지불하라.”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업체들에 거액의 공연권료를 지불하라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하이마트와 한음저협 사이에 소송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공연사용료의 징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고,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틀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공연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하이마트에 9억4천만원의 공연사용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WRITE 안현진



한음저협, SPC와 롯데GRS 등 160개 프랜차이즈 본사 내용증명

한음저협은 SPC와 롯데GRS 등을 비롯한 160개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난 5년간의 공연사용료를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미 지나간 공연사용료를 소급해서 청구한 것은 저작권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이마트 판례의 해석을 근거로 한 것이다.

청구한 금액도 적지 않다. SPC그룹과 편의점에 청구한 금액만 100억원에 달하고 다른 브랜드에도 20~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대부분 멜론, 지니 등 음원서비스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직영점과 가맹점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음원사용료를 냈더라도 공연권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연권이랑 공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매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을 틀 때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자에게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을 틀게 되면 공연할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음원이든 CD이든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별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 황당하다는 입장

갑자기 수십억원을 지불하라고 내용증명을 받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음원을 사용하면서 저작권료를 지불했는데, 법원 판결 결과가 달라지면서 공연사용료를 추가로 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강변한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는 주체는 가맹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이기 때문에 가맹점주에게 공연사용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한음저협도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의미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한음저협이 우선은 대형 프랜차이즈에 공연권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점차 중소기업체와 영세매장까지 공연권료를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연권료를 음원이용료나 CD판매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음저협에 징수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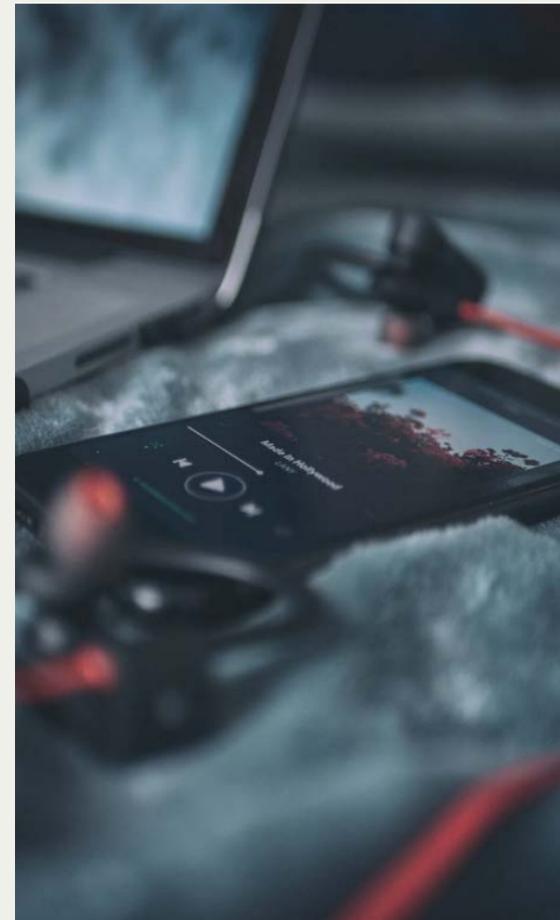


논리적 모순 있는 청구 대상 선정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이재호 사장은 이번 건에 대해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고 KT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음원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매장에서 음악을 듣는 것인데 지금 와서 과거 5년치 공연권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중 과세와 같은 측면이 있다. 하이마트와는 경우가 좀 다르다고 봐야 하는데, 하이마트는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이라 본사가 영업을 통한 수익을 올리는 주체이지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음악을 틀어서 수익을 올린 주체는 가맹점주인데 가맹본사에 공연권료를 청구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결국 가맹본사에서 우리는 음악을 통한 수익을 얻은 것이 없으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청구하라고 하면 한음저협도 난감한 처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가뜰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수익성 악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청구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면 한음저협도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결코 부유하다고 할 수 없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용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한음저협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를 한음저협과 프랜차이즈 업계 간에 상생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올해 8월23일부터 시행

이번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연권료 소급 청구와는 별개로 향후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



용 음반이나 음원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5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작년 8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8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저작권법 시행령과 한음저협 징수규정에 따르면 영업장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상업용 음반 재생이 제한되고 공연사용료가 따로 부과되고 있지만 소규모 점포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나 징수 규정이 없다. 그런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되면서 앞으로 3000㎡ 미만의 카페, 호프, 헬스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저작권관리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카페, 호프집의 경우 50㎡ 이상의 매장에만 면적별로 월 2천원에서 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연권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약 15평 미만의 소형 가게들과 전통시장은 앞으로도 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또한 새롭게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추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저작권법 제1조에 저작권법의 취지는 저작권자의 공연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가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두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있다. 한음저협의 공연권사용료 소급 청구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공연권료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와 협의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 나가는 것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KFN





법무법인 세종,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청구 설명회 '음저협 공연사용료 요구 내용증명 발송' 대응방안 모색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8일 스테이트타워남산빌딩 8층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룸에서 '매장음악의 공연 사용료 청구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이하 음저협)가 매장음악의 사용과 관련해 빵집, 편의점, 커피숍 등 수백 곳의 업체를 상대로 거액의 공연사용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및 매장음악서비스업체 등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SPC, 롯데, 지에스, 아모레퍼시픽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WRITE 신일영



손해배상 책임주체는 가맹점주 가맹본부가 가맹점 음원이용료 부담 가능

이날 설명회에서 임상혁 변호사(저작권팀 팀장, 사진)는 스타벅스 사건과 하이마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쟁점이 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2012년 5월 10일(스타벅스 사건)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특정 매장에서 재생할 것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음반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2016년 8월 24일(하이마트 사건) 판결에서도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여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공중송신에 대한 이용허락만 받고 매장에 전송한 음원들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라고 판결, 공연권 행사가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오는 8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 이후에는 매장에서 음원사용에 대해 공연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의 시행에 따라 영업허가면적 50㎡ 이상의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등), 체력단련장 등은 공연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 변호사는 "이때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주에 있으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음원 이용에 대해 부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판단시점에 대해서는 최고(催告)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음저협이 지난 5월 21일자 내용증명 송달일부 6월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내용증명 송달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음저협은 소송(訴訟)제기 가능성 높아 가맹점은 '손해액 등 구체적 증명 필요하다'고 항변해야...

임 변호사는 음저협의 소 제기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향후 '상업용 음반'을 사용한 매장 내 공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공연사용료 액수가 음저협의 요구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음저협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관리비율 및 손해액 등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항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 및 하이마트 사건 대법원판결의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제적으로 음저협에 대한 공연사용료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는 방안과 공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6년 9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은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음원이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개정했다. '상업용 음반'은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상업용 목적은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거나 해당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 이익을 얻음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라고 각각 개정된 바 있다. **KFN**

<상업용 음반의 예시>

항목	분류	구분	비고
영업장에서 재생되는 음악	기존 상업용 음반을 이용해서 CD 등을 제작하여 제공하거나,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스트리밍의 방법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대중가수의 정규/싱글, OST 등의 음반을 활용하여 서비스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님
	대중가수의 정규/싱글, OST 등의 음반을 활용하여 서비스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님	상업용 음반	다수의 주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에 해당함
	매장에서 재생하기 위해 음악을 새로 직접 또는 주문 제작하는 경우	비상업용 음반	회사의 홍보를 통한 상품판매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반 자체의 상업적 목적이 없음

자료 : 법무법인 세종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서 파이팅을 다짐하고 있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박기영 협회장, 이용기 학회장, 이규석 협회 수석부회장)

“가맹사업의 진흥이 진정한 상생 지름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대폭적인 개정해야...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이 내수 침체 및 과포화 상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법적·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6월 1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주관으로 열린 '2018 춘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포럼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선진 KLF 대표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진흥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사업진흥법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특히 "규제 법률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공정화법)은 수시로 개정되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반면, 진흥 법률인 가맹사업진흥법은 2007년 제정된 이후의 미 있는 개정 없이 대부분의 규정이 재량사항이거나 선언적 규정인 초기상태 그대로에 머무르고 있으며, 의무규정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여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규제입법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에는 기본계획상 구체적인 자원마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사업은 계속적 거래를 수반하므로 가맹사업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인데, 규제를 통해 감정을 악화시키거나 분쟁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스템인증 제도를 통해 분쟁 예방 ▲분쟁자율조정 제도를 통한 조기해결 ▲공제조합 설치를 통한 손해 회복 등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참여자들의 소통·협력규정도 부족하고, 흩어져 있는 정책부처에 대한 조율기관 규정도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가 기관과 업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할 공식적인 업계 대표단체로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 정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사실상 업계의 대표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쯤으로 인식하고 있어, 신뢰성을 제고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서 대표성을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한, "윤리교육, 신규창업자 교육 등 구체적인 교육사업 관련 법적규정을 마련하고, 협회 등 업계 대표단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조정협의회, 자율인증제도 필요 가맹사업 신뢰성 확보&부실 가맹본부로부터 피해 방지

김 변호사는 특히 자율조정협의회와 프랜차이즈 인증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는 일회적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로서 분쟁 발생 및 그 해결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업계 사정에 밝은 전문가를 통해 관련 분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내부의 자율적인 해결을 통해 관계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고, 언급된 적 있는 프랜차이즈인증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운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통해 가맹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실가맹본부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외에도 ▲중합적 진흥계획·정책을 수립할 '가맹사업진흥위원회'의 산자부 내 설치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돼 3년마다 시행 중인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의무화하고, 현실상 협회 등 관련기관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FCMB 주임교수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회장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과 이용기 학회장, 유상부 대표가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 통한 동반성장 도모해야

이러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FCMB 주임교수는 'K-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의 설계와 인증제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주제발표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상생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상생협력은 프랜차이즈산업이 당면한 과제"라고 진단하고,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한 상생프랜차이즈 구축 ▲프랜차이즈 분배의 투명성을 통한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생 실천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인증제 도입 ▲인증제 확산을 위해 산자부 관리감독 하에 상생프랜차이즈 인증위원회를 협회 내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차별적 규제 공세로 갈 길 점점산중... 명확한 목표와 미래지향적 사고로 돌파하자

이날 포럼 및 학술대회는 세종대 공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렸으며,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용기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협회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명의 산업인들이 참석했다.

박기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나날이 쏟아지는 규제에 대한 대응에만 매달리며 갈 길을 잃었다"고 무차별적 규제를 에둘러 비판했다. 박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 지향적이고 패배적 사고에서 벗어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도 축사를 통해 "정부도 해외 진출 지원, 유망 분야 사업화 촉진 등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용기 학회장은 "지금까지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규제가 주요 관심사였다면, 앞으로는 프랜차이즈산업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충분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때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따라서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기 학회장을 좌장으로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 및 유상부 (주)신라외식개발 대표가 업계 종사자의 관점에서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김동수 부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을 개별 산업이 아닌, 전체 경제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지적한 뒤, "현실적으로 성과공유제와 인증제 모두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성과를 규제하는 현실에서는 성과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증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처럼 규제가 계속된다면, 아노미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프랜차이즈의 장점과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라외식개발 유상부 대표는 "규제는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규제를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증제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토론회 후 (주)에스엠컬처앤콘텐츠가 '2018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전략과 홍보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K71**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영계 '반색' 근로시간 단축도 6개월 계도 기간

내년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내년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된 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근로자가 매달 받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금액과 숙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7%(11만 163원)를 넘어서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7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측은 이번 산업범위 확대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등 경영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영세업자의 폐업은 물론 근로자 수를 줄여야 했던 입장을 달랠 수 있게 됐다.

노동계 반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연이어 열렸지만 근로자 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에 그쳤다. 하지만 출석 요구를 받은 근로자 위원이 전원회의에 2회 이상 불출석함에 따라 법적으로 노동계 의견 없이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는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근로자위원 9명 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4명)이 불참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회의에 근로자위원이 전원 참석해 최저임금 논의가 말 그대로 노사와 공익, 사회적 대화 장소로서 최저임금 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시일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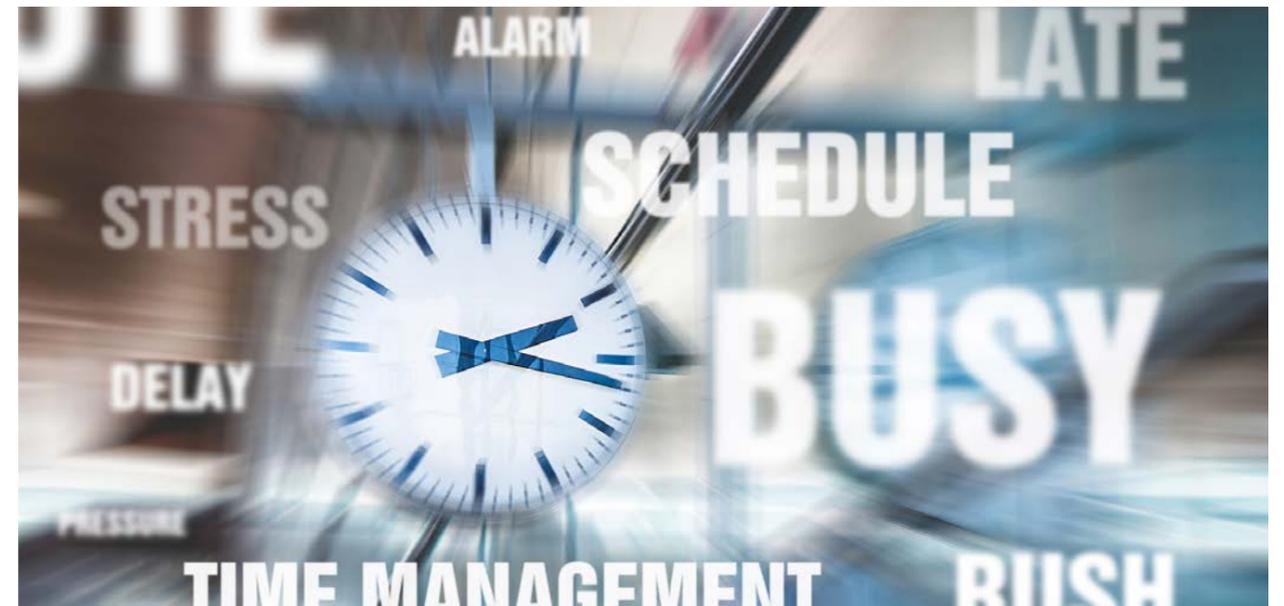
최저임금법 개정안, 헌법소원심판 받게 돼 '각하' 결정 가능성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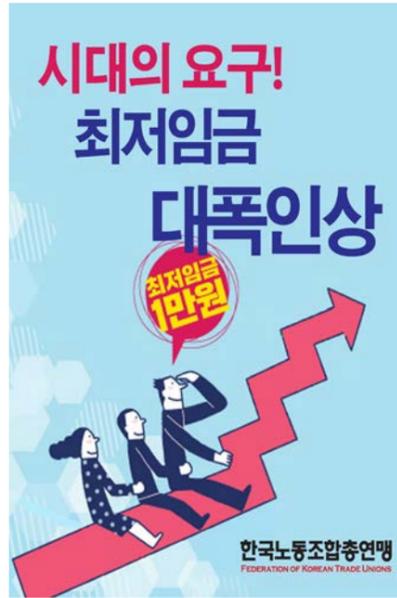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인상된 최저임금 삭감을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노동계의 주장과는 별개로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현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각하는 소송법상 소송당사자의 신청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건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는 결정이다.

실제 현재는 과거에도 이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많다. 반면 헌법소원청구서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데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안인 만큼 신청 요건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현재가 심리에 착수할 경우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실제 임금보장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OECD 등 경제기구 '최저임금 인상' 경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독이 된다고 경고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재벌 개





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OECD는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인상 폭을 결정하기 전에, 인상 영향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렌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16.4%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 인상된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

기 때문에 아직은 관련 정보 수집 단계다”라고 하면서, 최근 고용 증가세 둔화에는 건설 경기 하락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지만,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경고도 했다. 임금은 오르는 데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물가만 끌어 올리고,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발표한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다소 낮아진 2.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렌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

로 갈수록 성장세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에는 2%대 중반 수준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가계신용대출은 작년 3·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16조 7000억 원 늘었다. 실제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신용대출도 증가한 것. 지난 3월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0.1%로 사상 처음 160%를 넘었다. 올 1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1468조 원으로 1년 새 8%(110조 원) 증가, 15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 늘어난다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지난 2013년 4분기 이후 5년이 채 안 돼서 1500조 원을 돌파하는 셈이다. 이는 500조 원에서 1000조 원으로 불어난 기간(8년 6개월)보다 4년 가까이 빠른 속도다.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제도 기간 가져...

한편 정부가 7월부터 시행기로 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6개월 계



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1일 300인 이상 기업부터 본격 시작되는 ‘주52시간’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6개월 간 제도기간을 갖고 처벌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들은 그동안 주요 간담회를 통해 제도 기간 확대를 적극 주장해온 만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처벌이 유예되는 6개월 안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1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는 개별적인 사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만 나열돼 있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들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며, 앞으로 6개월 간의 제도 기간 내에 국내에서 축적되는 사례와 해석들을 모아 보완된 자료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개별 사례가 있는 경우, 고용부 본부나 지방 관서에 문의하면 즉각 대응해 현장 혼선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실태 점검과 기업 간담회에서 중견,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 간담회에서 공식 유예 기간을 달라는 요청도 많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임대료 인상이 더 무섭다는 주장도...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통계를 보면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만 15~29세)의 실업률은 10.5%나 된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5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건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수는 각각 전년 대비 2.2%, 7.9% 감소했다. 최저임금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한다. 아르바이트생 시급이 올라서 영세 사업자들이 채용을 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임대료가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영세 사업자의 최대 고민거리는 인건비가 아니라 임대료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 산정이 확정된 2016년 기준으로 세금을 뺀 임대 소득 규모는 17조8375억 원에 이른다. 순수익만으로도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를 상회한다.

임차인을 보호할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계약 이후 5년이 지나면 월세를 몇 배 올리든 건물주 마음대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제한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은 사업자들이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 지나치게 짧다”며 “최저임금보다는 임대료 상승폭을 제어하는 게 영세사업자와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KFN**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절차,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등 규정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6월 5일 공포·시행됐다. * 신고포상금제는 2018년 7월 17일 시행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행위 및 지급 대상자, 지급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②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또 ③서면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동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는 등 지난 5월 24일 발표된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26조)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지급 대상 행위,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급 절차 등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지급 대상 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 대상인 법 제6조에서 제12조*까지의 위반 행위를 지급 대상 행위로 규정. 제6조(구입 강제 행위의 금지),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의 금지),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 제10조(경영 활동 간섭 금지), 제11조(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2조(보복 조치의 금지)

○ **지급 대상자:** 신고·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되,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다. 다만 사업자는 제외되나, 그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지급 절차:**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했다. 법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상향 규정했다.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개정 대리점법은 공정위에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설정했다.

<표>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법 제27조의 2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공급업자	법 제32조 제1항	500	1,000	2,000
	2) 공급업자의 임원·종업원, 그밖의 이해관계인	법 제32조 제2항	50	100	200

식품의약품안전처



캐나다 밀과 밀가루 수입 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캐나다 앨버타 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200)이 발견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수입시마다 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만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 수입·통관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수거·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지난 6월 14일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캐나다 앨버타 주 남부지역에서만 발견되었고, 해외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혼입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가 국내에 수입 유통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표> 캐나다산 밀·밀가루 수입 현황

연도	계		밀			밀가루류		
	건수	중량(톤)	건수	중량(톤)	점유율(%)	건수	중량(톤)	점유율(%)
2016	78	14만 8446	44	14만 7778	6.3	34	668	2.7
2017	107	22만 7214	65	22만 6355	9.2	42	859	4.2
2018. 6.15	45	9만 72	28	8만 9683	8.3	20	369	4.2

* 전체 밀, 밀가루 수입현황 : (2016) 밀 232만9천톤, 밀가루 2만 5천톤 (2017) 밀 245만4천톤, 밀가루 2만톤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3개국에서 밀 수입, 점유율은 전체 밀, 밀가루 중 캐나다산 비중

특허청



상표·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 회의, 제주시 열려 TM5·ID5 중간회의(Mid-Term Meeting) 개최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 6.22~25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TM5* 및 ID5** 중간회의(Mid-Term Meeting)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TM5(Trade Mark 5) : 상표분야 5개 선진국(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 ID5(Industrial Design 5) : 디자인분야 5개 선진국(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

TM5 및 ID5 중간회의는 연말 개최되는 연례회의(Annual Meeting)에 앞서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 특허청이 각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신규사업을 새롭게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상표와 디자인분야의 세계적 흐름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스페인에서 개최된 TM5 및 ID5 연례회의에서 올해 의장국으로 선정됐고, 이에 따라 국제 상표제도와 디자인 제도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올해 TM5 회의에서는 해외 상표출원 시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미국)' 및 해외 출원 시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한국)' 등이 논의됐다.
ID5 회의에서는 각국의 디자인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한 '디자인 등록요건 비교연구(한국)', '디자인출원에 영향을 주는 관청의 정책과 기본경제요소 분석(유럽)' 등의 과제를 다뤘다.
또한, 올해 중간회의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력과제 이외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혁신적 상품이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5개 선진국간 새로운 협력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도 논의됐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ID5 중간회의 및 연례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 상표·디자인 제도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5개국 간 적극적인 협력과 논의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표와 디자인이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PRIS



아연수, “물을 바꾸면 몸이 달라진다”



이엔수 고급형

피부진정에 탁월한
미네랄워터 마스크팩



(주)이엔이 **고성호** 대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을 바꾸고 몸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날이 하루 빨리 오도록 아연수 확산에 저의 모든 열정을 바치고 싶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아연이온화된 물을 만드는 장치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매진해 온 주식회사 이엔이 고성호 대표와 아연수가 어떤 물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엔수로 키운 양파



이엔수로 키운 천양금의 뿌리와 수돗물로 키운 천양금 뿌리



이엔수 신선도 평가

면역력·피부재생·항염기능·생식기 기능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

아연이라는 광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연수는 기존의 물과 어떻게 다른가?

고 대표는 이에 대해 “저희가 개발한 아연이온화 장치인 이엔수를 통과한 물은 5대 중요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이 물속에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아연은 DNA 결합과 관련된 효소로 작용하며 면역력과 관계가 깊습니다. 피부재생과 항염기능이 있고,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의 성장촉진과 대사에 관여하는 물질이며 남녀 생식기 기능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아연이 포함된 식품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고 있죠. 마시는 물과 씻는 물 모두 인체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데 씻는 물로 사용하면 피부진정, 두피세정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됐고, 염증성 피부와 아토피 피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었어요. 마시는 물로 사용하면 성기능 개선, 당뇨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라고 답했다.

산자부장관상 및 AABI 상, 국제발명대전 금메달 수상

그렇다면 고성호 대표는 아연이온수를 개발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 왔을까? 회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와 현재까지 거쳐 온 과정에 대해 물었다.

“개인적으로 회사 설립 전에 개발한 환경에너지 분야 특허기술을 5개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제대로 펼쳐 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기도 하고 도전적인 제 성격상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서 본격적인 창업을 했습니다. 아연이온수 개발은 창업 이전부터 연구하여 지금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직접 피부에 접촉하고, 마시는 물이기에 연구기간이 길었고,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해야 하는 아이টে이기에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 왔습니다. 회사의 주요 매출은 태양광발전소 시행·시공, 인허가, 금융,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이뤄졌고, 그 바탕으로 아연수 제품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용화 개발이 완료되고, 각종 인증을 받고, 시장에 진출하고, 진출 예정인 제품이 아연이온수공급장치(브랜드명: ENSoo), 아연이온수 마스크팩, 미스트, 바디패치, 아연이온수(원료), 아연이온수 음료, 산업설비용 독립전원전기방식시스템, 기준전극유니트(수자원공사지정제품), 탄소복합체 외함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기술 및 제품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만 묵묵히 했더니,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에서 산자부장관상도 받고, 아시아창업보육협회(AABI)에서 국제적인 상도 수상하고, 국제발명대전에서 금메달도 따는 등 국내외에서 다 소개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상을 받았고, 인증 지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 대표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아연이온수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했는지 잘 느껴지는 대답이다.



가정용 아연이온수 제조 장치 이엔수 생산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현재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을까? 현재 이엔이에서는 가정용 아연이온수 제조 장치 이엔수 두 가지 모델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주방이나 욕실에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급형 소형제품을 응용이나 주방, 피부관리 등의 목적에 맞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집안 전체를 아연이온수로 사용하려고 할 때는 고급형 제품을 계량기함 안팎에 설치하여 집안의 모든 물을 아연수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토피나 여드름 등의 환자가 있어서 피부케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고급형 제품을 욕실 샤워라인에 바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엔수 고급형의 가격은 180만원(부가세 별도)이고, 보급형의 가격은 70만원(부가세 별도)이며, 렌탈하는 경우 각각 월 5만5천원, 2만2천원씩 39개월 간 내면 건강에 좋은 아연수를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공중파TV CM 송출 등 본격적 마케팅활동 전개

아연이온수를 본격적으로 판매하려고 준비 중인 고성호 대표는 “공중파TV CM 송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아연이온수라는 새로운 물을 적극 홍보하여 아연수의 효과를 알리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판매를 위한 가맹사업자 모집과 활동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시장을 다니며 시장조사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발굴한 바이어들과의 교류의 결실이 순차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호주의 경우, 이엔수 기술로 만든 고품질의 아연이온수 음료 생산을 시작하여 조만간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2018년은 이엔수를 비롯한 아연수 제품을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라고 올해 목표와 포부를 밝혔다.

세상 대부분의 발명품들이 그렇듯 이엔수라는 아연이온수 제조장치도 처음부터 건강에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 개발한 것은 아니다. 고성호 대표는 폐수 처리, 수도관 녹물 제거 등을 연구하다가 아연이 세포의 기본 단위인 DNA 형성에 핵심이 되는 필수 미네랄이고 피부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와 재생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오늘까지 제품 개발에 매진해 왔다고 한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좋은 물을 마시고 접촉하면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다.

“이제 아연수라는 새로운 물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물에 대한 생각과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고 대표의 눈에서 그의 신념과 열정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바람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은 물을 마시고 사용하는 날이 빨리 오길 기원해 본다. **KFM**



한 마리 가격으로 두 마리 제공 가성비·가심비 모두 충족



티바두마리치킨 유상부 대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꿈꾸고 있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은 저마다의 특징을 앞세워 다양한 방식으로 예비창업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또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성공을 꿈꾸며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성공확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특히 예비 창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가맹본부나 수명이 짧은 반짝 아이템으로 창업자들을 유혹하는 가맹본부도 존재하고 있기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WRITE 신일영·PHOTO 티바두마리치킨

티바두마리치킨은 2001년 부산에서 시작하여 2018년 현재 전국 30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적 브랜드다. “치킨을 맛있게 티겨봐”에서 ‘티’와 ‘바’를 꺼내 만든 네이밍이다.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컨셉으로 18년 동안 큰 굴곡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 여파로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에게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만족시키는 아이템으로 각광받으며,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티바두마리치킨 유상부 대표는 치킨 창업과 티바두마리치킨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치킨은 소자본 창업아이템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중적인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달 중심의 프랜차이즈는 굳이 좋은 입지조건이나 인테리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고, 티바두마리치킨은 이러한 치킨창업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매장이 골목상권에 위치하는 만큼 임대료도 저렴하며, 각종 언론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체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을 아낄 수 있죠.”



티바두마리치킨의 대표적인 메뉴인 '오리지널치킨'

치킨·새우·떡볶이를 한번에 맛볼 수 있는 '치새떡'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도 산다!” 가맹점과 상생위해 다양한 혜택 제공

티바두마리치킨은 창업자를 위해 가맹비·보증금·로열티가 없는 '3無정책'을 18년간 고수해오고 있다.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정책 일환이다. 티바두마리치킨이 실시하고 있는 가맹점과의 상생정책은 이뿐만 아니다.

유상부 대표는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말을 굳게 믿고 있으며, 또 이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두마리치킨의 특성상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사가 일을 더 많이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우선 식자재를 본사가 나서서 직접 해결해주는 것이다. 국내 농장 두 곳과 계약하여 사육한 닭을 국내 최고수준의 본사공장에서 직접 육가공하고 있으며, 각종 양념과 소스를 본사에서 직접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주문자 생산방식이 아닌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다. “치킨가격이 싸기 때문에 원료육도 좋은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일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본사에서 모든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은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요 항목 중 하나인 ‘균일한 맛’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주 3회 배송하며, 유통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카카오주문하기 등 이제는 배달업종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본사와 B2B 계약을 맺어 광고비 할인 및 수수료 인하 등을 가맹점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의 매출 상승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달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협업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며, TV협찬광고 확대, 전속모델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와의 협업이나 TV협찬광고 비용은 본사가 약 70%를 부담하고 있어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할인 프로모션만 약 70% 가량 본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으며, 야구장 펜스광고, TV/CF송출, TV협찬광고 등은 본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목표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해야 성공확률이 높다!

티바두마리치킨이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창업자 교육이다. 유상부 대표는 국내 가맹본부 중 상당수가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흔히 ‘교육사업’이라고도 합니다. 본사가 개발한 메뉴와 브랜드에 맞는 마케팅 기법 등을 본사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기존 가맹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창업전후 필수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바두마리치킨은 가맹점과 동일한 조건(상권입지 내)으로 직영점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매뉴얼 개선점을 찾아내 보완하고 이를 가맹점에 다시 개선해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비창업자교육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교육커리큘럼을 통하여 총 5일간, 이론교육 2일+실습교육 3일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중시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동기부여다. 유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치킨집 창업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 첫머리가 “치킨집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목표의식을 세워주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목표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운영해야 성공확률이 높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티바두마리치킨은 지난해 9월부터 ‘스토어닥터(STORE DOCTOR)’ 운영을 시작, 가맹점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스토어닥터 서비스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가맹점관리에서 벗어나, 가맹점주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성공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본사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여 관리하는 서비스다. 기존의 슈퍼바이저가 ‘관리’하는 개념이라면, 스토어닥터는 ‘치료’하는 개념이다. ‘가맹점을 치유해준다’는 의미여서 굳이 슈퍼바이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2의 전성기 가수 홍진영 전속모델 계약

한편, 티바두마리치킨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티바두마리치킨은 이러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인기가수 홍진영씨와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하고, 8월 1일부터 홍진영씨를 모델로 한 광고가 On-Air 예정이다. 이와 함께 SK 와이번스와 인천문학구장 내 본부석 LED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JTBC TV <철전>과 <몽쳐야 뜬다>에 협찬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티바두마리치킨은 현재 전국 300여개 점포가 영업 중이며, 올 1월부터 5월까지 35개 가맹점이 개설됐다. **KFN**



메인-엔저와 저가항공 등의 영향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오사카도톤보리의 센니치마 시장가

한국 2030 사로잡은 日流 스시 먹고 일어 배우며 젠스타일 추구 정치와 소비는 별개... '문화 장르' 자리매김

지난 5월 13일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오사카 최고 인기 관광지 중 하나인 이곳에선 길을 가다 보면 일본어 만큼이나 한국어가 자주 들려 온다. 일본풍 가게들과 일본어로 된 간판만 없으면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릴 정도다. 아니나 다를까. 오사카는 한국인이 즐겨 찾는 해외 여행지 1위다. 티몬에 따르면 지난해 자유여행 분야에서 오사카 관련 상품 점유율은 20.1%로 후쿠오카(10.1%), 도쿄(8.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1~3위를 일본 도시들이 싹쓸이한 것도 눈에 띈다.

미노루 키타츠지 도톤보리 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5년 전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특히 한국인이 많이 늘었다. 말차맛 디저트 류나 조미료, 인스턴트 커피 등을 많이 사간다. 한국은 일본과 가까워서인지 숙박일수가 짧고 재방문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인지 지방 안에 속 들어가는 아이디어 잡화 등 작은 선물들을 많이 사간다"고 말했다.

714만200명.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집계한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수다. 사드 사태가 심화되기 전인 2016년 한국에 몰려온 유커가 800만여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방일한 한국인 관광객수가 7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방일 외국인 중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였다. 전년(509만302명) 대비 증가율(40.3%)은 전체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일본의 전체 외국인 입국자(2869만900명) 중 한국인 비중은 24.9%로 같은 기간 중국인(25.6%)과 대등소이었다. 양국 인구가 25배 가량 차이나는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하다.

여행 뿐 아니다. 음식·도서·애니메이션 등 주요 문화 분야에서 일본 관련 콘텐츠가 연달아 흥권을 날리고 있다.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갈수록 뜨거워지는 '일풍(일본 열풍)'을 들여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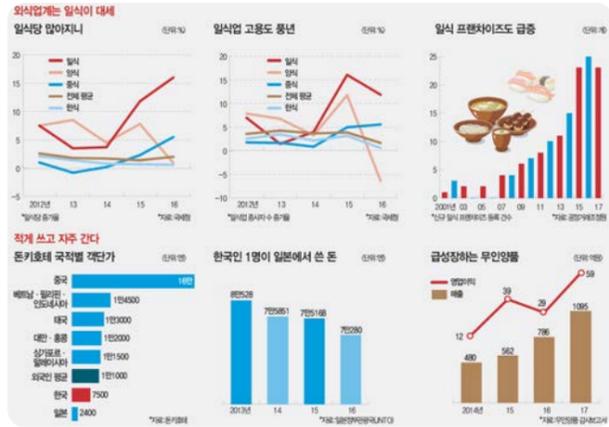
일본 여행객 700만명 시대 인구 25배 많은 중국인 관광객과 비슷

일본 여행붐의 이유는 여러가지다. 5년 이상 지속된 아베노믹스로 엔화 가치가 낮아진 데다 저가항공 활성화로 일본 여행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일본이 비자 면제, 면세 혜택 확대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친 것도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저렴한 관광지는 일본 외에도 중국, 동남아 등 많다. 더구나 다른 나라보다 월등해 보이는 높은 재방문율은 일본 문화에 대한 호감도 없이는 설명하기 힘들다.

일본 저가쇼핑몰 돈키호테의 타카하시 미츠오 전무(CFO)는 "돈키호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선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1회 방문당 구매하는 객단가는 한국인이 가장 낮다. 소득 수준에 비해 객단가가 낮은 것은 그만큼 자주 방문해서 조금씩 사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돈키호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객단가는 7500엔으로 중국인 객단가(16만엔)의 절반도 안됐다. 또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각 1만4500엔), 태국(1만3000엔), 대만·홍콩(각 1만2000엔),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각 1만1500엔)인의 평균 객단가보다도 낮아, 전체 외국인 평균 객단가(1만1000엔)에도 못 미쳤다. 오히려 내국인(일본인)의 객단가(2400엔)와 가까울 지경이다. JNTO가 조사한 '한국인 1명이 일본에서 지출한 돈'도 2013년 8만528엔에서 2014년 7만5851엔, 2015년 7만5168엔, 2016년 7만280엔으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국내 여행하듯 자주 가되, 목표로 하는 볼거리, 먹거리만 채우고 오는 실속형 관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여행업계는 일본 여행 상품 개발에 매진하는 분위기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전체 여행객 중 일본 여행객 비중은 2016년 이후 30~4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가 있었던 올 2월에는 일본 여행객 비중이 48.4%에 달했다. 하나투어를 통한 해외여행객 두 명 중 한 명은 일본을 찾았다는 얘기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전체 여행객 중 일본행 수요는 꾸준히 우세하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잠시 동남아가 앞섰지만 2016년경부터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이후부터는 동남아와 일본 여행객의 월별 비중이 비슷하거나





10% 차이로 일본이 앞서고 있다. 물론 전체 해외여행수요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 그러나 일본 여행 수요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에서 일본 여행 인기가 전체 여행 증가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외식·출판·문화도 일풍 일본어 교재 3년 연속 100대 베스트셀러

외식업계에서도 일식이 대세가 됐다. 전국적인 일식당 창업 열풍이 대표적인 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식업'으로 분류된 전국 사업체수는 2011년 6707개에서 2016년 1만39개로 5년 만에 50%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양식 사업체수 증가율(32.4%)은 물론, 중식(8.4%), 한식(5.7%)보다도 최대 10배 가까이 높았다. 같은 기간 해당 산업 종사자수 증가율은 일식업이 46%로, 서양식(24.2%), 중식(15.2%), 한식(12%)보다 최대 4배 가까이 높았다. 백화점들도 일본에서 유행하는 디저트 브랜드 모시기에 바쁘다. 롯데와 신세계 백화점에 치즈타르트 '베이크', 144점의 애플파이 '리플' 전문점 등이 입점한 게 대표 사례다. 일식당이 많아진 이유는 그 만큼 소비자들이 일식을 즐겨 찾기 때문이다. 매경이코노미가 신한카드와 손잡고 주요 지하철역 상권 반경 1km 이내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15년 대비 지난해 일식 가맹점 결제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흥대입구(37.8%), 강남(37.7%) 등 전통 대형 상권은 물론, 용산(91.4%), 공덕(54.7%), 왕십리(43.4%) 등 새로 뜨는 상권에서도 일식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일식의 인기가 국내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고용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판업계에선 일본 문학이나 자기계발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예스24가 집계한 연도별 100대 종이책 베스트셀러 자료

에 따르면, 저자가 일본인이거나 책 제목에 '일본', '도쿄', '오사카'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베스트셀러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9권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권으로 늘었다. 일본 애니메이션 열풍에 다시 불을 붙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이 대박을 터뜨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니메이션의 동명 소설판인 '너의 이름은'은 지난해 전체 베스트셀러 32위에 오른 데 이어 만화로 각색한 버전 '너의 이름은, Another Side : Earthbound'(51위)과 '만화 너의 이름은1'(89위)이 함께 인기를 끌며 100위 안에 3권이나 진입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베스트셀러 중 또 다른 특징은 일본 어학서적의 강세다. 일본어 공부기 술연구소가 지은 일본어학 서적 '착! 붙는 일본어 독학 첫걸음'은 2015년에는 100대 베스트셀러에 들지 못했다. 중국어(NEW 맛있는 중국어 Level1 상, 97위)가 당시 제2외국어 서적 중 유일하게 100위 안에 들었을 뿐이다. 이후 상황이 역전됐다. 중국 어학서적은 이후 베스트셀러에서 자취를 감췄고 '착! 붙는 일본어 독학 첫걸음'이 2016년 78위로 신규 진입하더니 지난해(88위)와 올 상반기(1~5월 누적 기준 50위)에 연달아 이름을 올렸다. 일본 여행과 문화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본어를 공부하려는 수요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여행은 처음에는 단체로 유명 랜드마크를 탐방하는 데서 시작해 개별적으로 내국인만 아는 숨은 명소를 방문하는 순으로 심화된다. 끝에 가서는 현지인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게 된다. 최근 일본어 서적의 베스트셀러 진입은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 문화 콘텐츠와 친숙해지다 보니 일본에서 유행하는 문화가 한국에서도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다. 일상에서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이 대표 사례다. 일본은 2011년 도호쿠(東北) 대지진 이후 전국적으로 미니멀리즘과 웰빙 문화가 더욱 심화됐다. 대지진을 겪고 보니 많이 소유할수록 낙하물이 많이 생겨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체득한 것. 일본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호쿠 대지진 이후 일본에선 로하스(LOHAS) 트렌드가 확산됐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재난이 닥치면 소용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건강임을 깨달은 때문이다. 이후 일본인들은 물건을 직접 만들어 쓰는 DIY(Do It Yourself) 상품, 전통 공예품, 수제양복, 에코백 등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됐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가깝고 편리한 것보다 다소 불편해도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문화가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한국에선 미니멀리즘의 대표 브랜드인 '무인양품'이 일본에 이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무인양품이 한국에서 거둔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4

년 480억원, 12억원에서 지난해 1095억원, 59억원으로 3년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신촌에 1686㎡(약 500평)에 달하는 5층짜리 국내 최대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 무인양품은 지난해 국내 점포수 25개에서 올해 30여개로 늘리며 외형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반일 감정 속 태어난 일풍 왜? 비교 우위 있는 문화 장르 취사선택 최근 정치·외교계에선 일본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낮아졌다. 북핵 협



상에서 소외된 일본을 두고 '재팬 패싱(일본 배제)'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역사 왜곡 교과서 등의 이슈로 인해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도 여전히 높은 상황. 그런데 문화계에선 왜 일풍이 부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국가 간 분쟁과 개인 차원의 소비를 별개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부상, 그리고 비교 우위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외 문화 취사선택이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김유영 동덕여대 일본어과 교수는 "일본 문화라고 다 인기있는 것은 아니다. 음식, 여행, 애니메이션 등은 일본 문화가 선호되지만 영화, 드라마 등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역사 문제와 개인의 문화 소비를 구분짓는 요즘 세대가 일본이 강점을 가진 문화 콘텐츠들을 가려 소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영 교수는 이어 "일본에서도 2000년대 중반 동방신기 등장 이후 2012년까지 한류 열풍이 뜨거웠다. 현재는 예전의 붐은 사라지고 한국 문화가 여러 해외 문화 중 하나로 소비되고 있다. 한국의 일풍도 이런 과정을 거쳐 해외 문화 장르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풍은 한국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외식업계에서 일식이 유행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그러나 일식 붐만 따라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산물 유통 전문기업 명진홀딩스의 정상익 대표는 "최근 젊은 층에서 이자까야나 일식집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회 등 수산물을 많이 취급하는 일식은 특성상 고도의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도마 관리법만 해도 50여가지 이른다. 그러나 충분한 경험 없이 선부르게 창업하는 이들이 늘면서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라며 "일식집에서 1~2년 근무해본 뒤 노하우를 익히고 나서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김유영 교수는 "일본에서 유행한다 해서 한국에서 다 인기있는 것은 아니다. 치즈케익은 일본 여행을 가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정작 한국에 들어와선 잘 찾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아이템에 꽂히면 계속 소비하는 일본인과 달리 한국 소비자는 유행에 민감해 금세 새로운 아이템으로 갈아타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해 투자를 할 때는 몸집을 가볍게 하고 SNS 마케팅에 신경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외식컨설팅 기업 알씨피코리아의 아라이 미찌라니 대표는 "일본에서 잘 나가던 패밀리레스토랑 체인은 한국 진출에 실패한 반면, TGIF나 아웃백스테이크 등 미국 브랜드는 성공했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나 생활습관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어 오히려 미국 아이템을 가져오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 여행에서의 체험과 실제 생활 속 체험은 매우 다른 만큼, 한국인 특성이나 문화 습관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FN

국제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동남아에 집중하는 10가지 이유

출처: FRANCHISE 말레이시아

글로벌화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글로벌화가 번성하거나 동남아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성장을 주도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브랜드가 현재 동남아시아를 국제 확장의 중심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이웃 국가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지역 브랜드에서 시작하여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인도 아대륙, 중동 및 아프리카, 유럽 및 태평양을 거쳐 아메리카 대륙으로 파급된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거나 진출하려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ASEAN 경제공동체(AEC)를 통한 경제통합의 결과로 이 지역에서 사업수행 용이함이 증가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요인들과 관련이 있고,

둘째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넓은 글로벌 트렌드와 더욱 관련이 있다.



유상목

PROFILE
 現 FranOn Corporation 대표
 現 ㈜미스터힐링 상임고문
 現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전문위원
 前 (주)김기네 기획실장
 前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前 세계프랜차이즈총회 서울대회 사무국장



동남아시아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유치하는 상위 10개 지역요인

AEC에 따른 유리한 ASEAN 무역정책 외에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동남아시아에 유치하는 상위 10개의 지역요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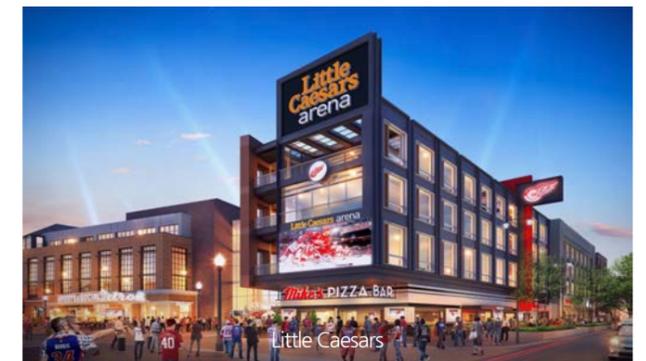
1. 동남아시아는 약 6억 3,550만명의 증가하는 많은 인구가 있고 세계 인구의 9%에 이르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이 세계 인구 20위 안에 들어있다.
2. 동남아시아의 GDP 성장률은 2016년에 4.7%였으며, 2조 4천억 달러에 이른다. 만약 ASEAN이 단일 실체라면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경제로 평가된다.
3. 동남아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1인당 GDP가 측정 가능한 증가를 보였고,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싱가포르와 최저 임금을 가진 캄보디아 간의 격차가 현저하지만 1인당 평균GDP가 약 3,900달러에 이른다.
4. 동남아시아에는 젊은 도시인구가 있다. 8개 SEA 국가의 평균연령은 세계 평균보다 낮으며 이 지역 인구의 35%는 19세 미만이다. 또한 인구의 40% 이상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으며 SEA는 세계의 큰 도시 3곳, 방콕, 자카르타, 마닐라가 있다.
5. 동남아시아는 SEA 공동사회 중 실업률이 5% 미만이고 성인 문맹 퇴치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저렴한 생산인력 확보 및 숙련된 인재의 가용성 증가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매력적이다.
6. 서비스 부문은 국가들이 농업주도경제에서 벗어나 SEA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서비스 부문은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에서 GDP의 50%를 초과하는 SEA 국가 중 8개 국가에서 GDP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7. 동남아시아는 일반적으로 근 10년간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물가상승률을 5% 이하로 유지하면서 최근 들어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였다.
8.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 중 6 개국은 예상 GDP, 시장 규모, 법적인 문제, 시장 진입 및 사업설립의 용이성 및 정치적 위험평가 등을 포함한 복합 지수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추진하는 상위 20개국으로 확인되었다.
9.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을 포함한 몇몇 SEA 국가는 외국 및 자국 브랜드의 확산을 포함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또한 국제 프랜차이즈가 유입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 브랜드가 미안마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10. 동남아시아의 긍정적인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젊고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산층과 결합하여 더 높은 기준과 기대로 소비력을 증

대시키며 쇼핑몰,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 현대적인 소매점의 빠른 발전에 기여하였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동남아시아를 과제로 삼고 있어

넓어지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트렌드로 인해서 브랜드들이 동남아시아를 국제 확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추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1) 프랜차이즈 전문분야로의 전환
 - 2) 빠른 캐주얼 프랜차이즈 부문의 성장
 - 3) 아동관련 프랜차이즈의 성장
 - 4) 전문 피트니스 브랜드를 포함한 비 외식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 5) F&B와 서비스 부문에서 이동 프랜차이즈의 출현
- 이러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동향이 미국, 영국 및 호주와 같은 선진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앞서 설명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힘입어 이 지역의 풍요롭고 교육 받고 정보화된 중산층이 계속 출현하면서 같은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부문에는 음식료품, 교육 및 훈련, 비즈니스 서비스 및 소매업 등이 포함된다.

북미 브랜드의 동남아 진출 현황

Hot-N-Ready라는 독특한 운영 플랫폼을 갖춘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피자 체인인 **Little Caesars**와 같은 북미 F&B 브랜드는 2018년 동남아시아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Planet Hollywood**를 소유한 Earl enterprises Group, Buca di Beppo, Earl of Sandwich는 2017년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Buca di Beppo 매장을 개설하여 올해 Planet Hollywood와 Earl of Sandwich를 마닐라에 개장하고 향후 3년간 3개를 이 지역에 오픈할 계획이다.

북미 서비스브랜드는 피트니스 브랜드인 **Snap Fitness**, 9 Round 및 Cyclebar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미국 피트니스 업계의 각 분야별 리더이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댄스 스튜디오인 할리우드 기반을 둔 Millennium Dance Complex이다. Snap Fitness는 2017년에 인도네시아의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9 Round는 올해 말레이시아에 들어간다. Dallas 기반의 FastSigns는 시각적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로서 ASEAN 전역의 프랜차이즈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동남아 시장에 공격적

호주와 뉴질랜드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동남아시아는 국제적인 확장을 고려하여 국가 브랜드의 첫번째 진출경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이 지역의 파트너를 찾는 여러 가지 호주의 음식 브랜드가 있다. 여기에는 애들레이드의 **FUNK 커피**, 시드니의 **Mad Mex**가 있으며, 2016년에는 Business Review Australia에서 호주의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시드니의 Cuban 테마 카페인 **Coco Cubano**도 포함되어 있다.

열망하는 브랜드들인 **Red Rooster**, Oporto 및 Chicken Treat를 비롯한 3가지 브랜드는 안정적인 제품이며 호주에서 가장 큰 QSR 치킨 운영업체들은 동남아시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취학 전 공부업체 선두주자인 호주의 **Begin Bright**도 이 지역에 가맹점사업자를 찾고 있다.

F&B 업계의 급성장하는 건강 옵션 부문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오uckland에 Habitual Fix가 있다.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 두 브랜드는 2017년에 프랜차이즈를 통해 ASEAN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아시아 및 인도 브랜드들도 급증

지난 5년간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일본과 한국의 식품 브랜드가 급증했고 동아시아 및 인도 대륙의 유명 브랜드들도 아세안을 국제시장



Snap Fitness



Mad Mex



Red Rooster



Begin Bright



Panchavati Gau



Call Jetking Sadashivnagar Learning Center on 9686156601 or write to us at sdn@jetking.com

확대의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성장하려는 인도 브랜드의 예로는 인도 최대의 순수 채식요리 업체인 Thali 레스토랑 체인 **Panchavati Gaurav**, 인도 최고의 디지털 기술교육 기관인 **Jetking**, 약 70만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약 100개의 학습센터가 있는 70년 역사의 회사가 있고, 115개 도시와 4개 국가에서 225개의 진료소를 운영하는 **Batra 박사의 세계 최대 동종요법 클리닉 체인**이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음식료 사업부문은 GCC와 중동 전역에서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 지역의 여러 브랜드가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본사가 있는 150년 역사의 동양향수 전문가 **Abdul Samad Al Qurashi**는 2017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에서 4개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체결했다. 쿠웨이트의 **Let's Popcorn**은 동남아시아에 프랜차이즈 및 유통업체를 찾고 있는데 GCC 지역의 주변국가로 성공적인 확장을 해왔다.

다른 지역의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ASEAN 프랜차이즈 기회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및 기타 시장의 브랜드를 비롯하여 이 지역의 확장 기회를 모색하는 수많은 유럽 브랜드도 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 확장 기회를 찾고 있는 전 세계의 브랜드를 통해 기존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거나 프랜차이즈에 투자함으로써 기존 비즈니스를 다양화하려는 이 지역의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많은 종류의 프랜차이즈가 있다. 이것은 지역 및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KFN**



허위 과장 정보제공 여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희망자 등)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가맹희망자 등은 가맹본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대하여 가맹희망자 등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와 관련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분쟁이다.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 등을 기만하거나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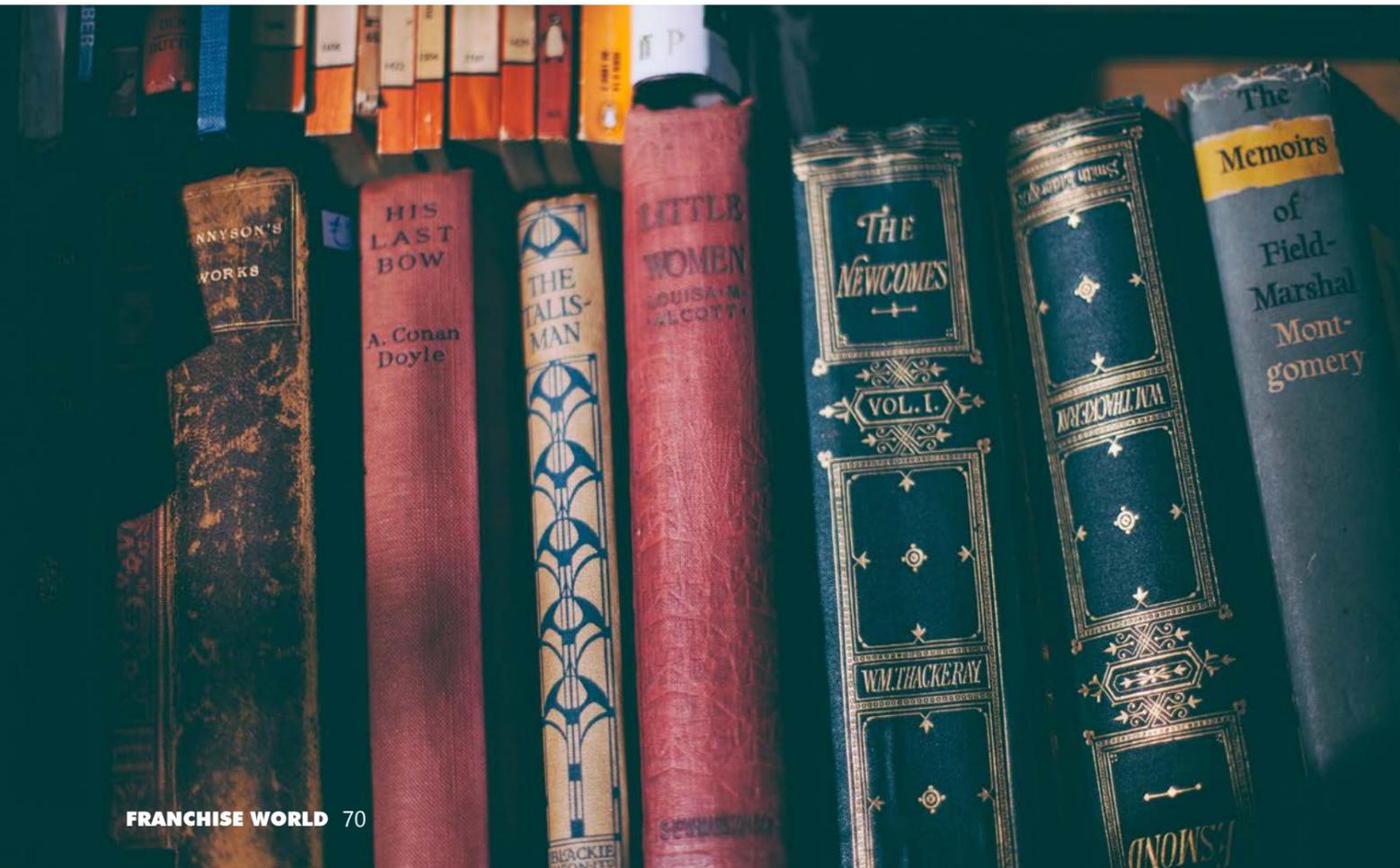
이 때 가맹희망자 등을 기만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 등이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PROFILE

WRITE 황보 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 변호사
 - 공정거래 조정원 위원
 - 김&장, 세종 변호사
 - 가맹사업법 제정 및 가맹거래사 시험출제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담당관 / 약관심사관
 - 부산 동부지검 검사(22기)
 ① 02-598-6000



이처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에 정보제공 내용이 허위 과장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가맹계약 취소 및 가맹금 반환이나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 등 그 행태가 다양하고가지각색의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법 위반이 되는 허위 과장정보 제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함) 등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등에 허위 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 등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 등이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에 해당하여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면 관계상 이하에서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여부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며 쟁점 사항인 가맹본부의 수익성 분석표 제공내용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유의할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1) 가맹희망자 등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므로 '일 평균매출', '월 평균매출'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맹희망자 등은 향후 가맹점을 개설하게 될 경우 해당 매출액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할 개연성이 커서 예상수익 등이 실제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월 매출액 수준별 일정 순이익을 추정하여 가맹희망자 등에게 일정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공된 정보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만일 수익성 분석표 이외에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 등으로서는 수익성 분석표에 기재된 내용이 장래의 매출액 등을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자료로 볼 수 있다.

3) 가맹점 매출액이나 순이익은 개별 가맹점의 위치 및 제반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계절에 따라 그 매출이 달라지는 특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전체 또는 유사 상권의 1년 동안의 매출액 및 순이익을 기준으로 수익구조를 산출해야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4) 또한 가맹점의 장래 예상 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의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이후 부담해야 하는 상당한 비용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통상 순이익이라 함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원재료 등), 영업비용(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회계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므로, 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의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평균 순수익,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장래 예상 수익을 산출하였고, 순수익을 계산할 때 인테리어비용, PC 및 집기류(책상, 의자) 구입 등 상당한 비용을 누락한 것은 장래 수익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확성 등 여러 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5) 마지막으로 가맹본부가 구체적인 상권분석이나 시장분석,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일부 점포의 실제 매출액 자료 데이터 표본을 근거로 수익성 분석표를 작성한 경우 자료 작성을 위한 표본이 매출액이 높은 일부 점포에 불과하다면 전체 가맹점의 실제 평균 매출액보다 상당 부분 높은 수치로 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익성 분석표를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자료인 것처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다면 동 수익성 분석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이 결여된 실제보다 과장된 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KFN**

오피스디포,
후쿠오카서 “2018 가맹점 대표자회의” 개최



오피스디포가 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2018 가맹점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오피스디포 가맹점 대표자회의는 매년 본사와 각 가맹점의 대표가 모여 회사의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동반 성장을 위한 발전적 정책들을 논의하고자 실시하는 대규모 행사다. 지난 2016년에는 태국 푸켓, 2017년에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었다. 문구·사무용품 업계에서 유일한 대규모 가맹점 단체 행사로, 이번 2018 대표자회의에는 가맹점 106명, 본사 임직원 18명 등 총 124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행사 참가자들은 3박 4일간의 일정 동안 일본 후쿠오카 및 벳부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들을 둘러보는 한편, 2일차 오전에 진행된 회의 시간에는 본사 임직원과 각 가맹점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여 회사의 주요 성과와 정책 사항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물류 시스템 투자 현황 및 소매 매장 활성화 전략, 본사의 가맹점 지원 서비스 개선 안내와 IT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출 성장을 위한 신규 제휴 비즈니스가 소개되어 행사에 참가한 가맹점 대표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저녁 시간 단독 홀에서 개최된 만찬장에서는 15년 이상 장기근속 가맹점에게 상패와 100만원 상품권을 시상하기도 하는 등, 관광 일정 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피스디포는 앞으로도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는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문구·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KFN**



김보리 플레이앤뮤직, '맥포머스 프로그레스 리포트' 도입



한국김보리는 김보리 플레이앤뮤직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맥포머스 크리에이터와 인벤터 프로그램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맥포머스 프로그레스 리포트 (MAGFORMERS PROGRESS REPORT)'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맥포머스 프로그레스 리포트'는 맥포머스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아이의 긍정적 발달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양식으로, 교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를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아이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을 한 영역과 변화를 보인 영역, 가장 소극적인 수행을 보인 영역에 대한 그래프를 제시한다. 또한, 그에 따른 유아의 수행 관찰결과와 맞춤 놀이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맥포머스 프로그레스 리포트 도입은 부모가 함께 참여하지 않는 맥포머스 크리에이터, 인벤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이들의 프로그램 참여내용 및 발달정보를 궁금해 하는 부모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아이의 수행결과, 즉 수행능력보다는 수행의 과정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며, 분기별 1회 제공된다.

한국김보리는 맥포머스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전국 김보리 센터에 도입하기에 앞서 직영센터 2곳(청담, 서초)에서 먼저 시범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오는 여름학기에는 전 센터에 도입해 진행할 예정이다.

풀잎채, 여름 신메뉴 '보양대첩'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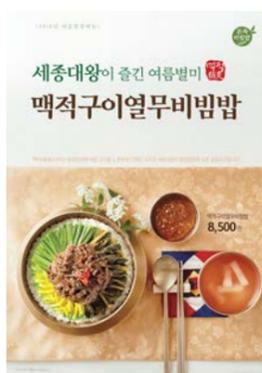


한식뷔페 풀잎채(대표 정인기)가 여름을 맞아 여름 신메뉴 15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풀잎채 여름 신메뉴의 개발 컨셉은 '보양대첩'이다. 시즌 특색을 살려 원기회복에 좋은 식재료들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건강특식으로 준비했다.

풀잎채 여름 신메뉴는 대표적인 보양식재료인 닭을 중심으로 마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제도 '너마늘 위한 닭'이다. 닭요리는 특별히 보양특선 4코스로 준비했다. 닭 반마리에 아콘·인삼·대추·한약재 등을 넣고 푹 고아낸 '아콘반계탕', 즉석에서 볶은 춘천식 닭갈비에 갖은 야채와 마늘 토핑을 듬뿍 올려낸 '춘천닭갈비 그맛', 닭갈비 양념에 매콤하게 볶아 즐기는 '닭갈비볶음밥', 마무리 별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여름보양 삼계죽' 등이 그것이다.

본죽&비빔밥 카페, '맥적구이열무비빔밥' 출시



본아이에프의 한식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본죽&비빔밥 카페'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해 제철 식재료로 맛을 낸 '맥적구이열무비빔밥'과 결들임 메뉴 '남도별미떡갈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맥적구이열무비빔밥'은 시원하고 아삭한 열무김치와 특제 된장소스에 노릇하게 구워낸 소고기 맥적구이를 밥과 함께 곁들이는 별식으로, 여름에만 만날 수 있는 한정 메뉴다. 지난 2016년 5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14만 그릇을 판매하면서, 본죽&비빔밥 카페를 대표하는 계절 비빔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맥적구이는 과거 세종대왕이 체력보강을 위해 먹은 '행궁밥상' 메뉴로도 유명하다. '맥적구이열무비빔밥'의 가격은 8500원이며, 전국 본죽&비빔밥 카페에서 만날 수 있다.

이연에프엔씨, 충북 오송에 대규모 CK공장 신축 캐릭터 이벤트로 전달 대비 16.5% 매출 상승



이연에프엔씨는 최근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에 약 5000평 규모의 공장 신축 공사 약정식과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오는 22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될 CK공장은 현재 운영 중인 충북 음성공장에 이은 두 번째 공장으로 최근 한촌설령탕과 육수당 가맹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설령탕 브랜드 '한촌설령탕'과 서울식 국밥 전문점 '육수당'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식품외식전문기업 (주)이연에프엔씨(대표 정보연)가 대규모 CK(Central Kitchen, 조리제품 생산시설)공장을 설립한다.



한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이연에프엔씨가 운영하고 있는 설령탕 브랜드 '한촌설령탕'이 지난 5월 진행한 무민 캐릭터 증정 이벤트 효과로 매출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촌설령탕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5월'이라는 주제로 무민과의 콜라보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이 행사로 5월 한 달간 매출이 전달 대비 약 16.5%,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상승했으며, 회사측은 이번 이벤트가 고객 관심과 매장 방문율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의 달이라는 특수성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점, 한정판이라는 희소성이 고객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한 몫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바돔, '미스터리 쇼퍼' 제도 활용



이바돔은 메뉴의 맛과 매장 내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미스터리 쇼퍼는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을 방문하여 점원의 친절도, 맛, 사업장의 분위기 등을 평가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바돔 관계자는 "미스터리 쇼퍼 운영은 지난 20여 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바돔만의 특별한 맛과 서비스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올리고 가맹점의 성장과 성공창업을 돕겠다"고 전했다.

이바돔은 미스터리 쇼퍼를 통해 최근에 오픈한 매장은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부진하거나 관리를 해야 하는 매장은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크린토피아, 대전지방보훈청과 업무협약 체결



세탁 전문 기업 크린토피아가 대전지방보훈청과 '국가유공자 세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업무협약은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크린토피아가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편리한 세탁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크린토피아는 대전 지역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300가구에 600만원 상당의 세탁상품권을 지원한다. 세탁상품권을 지참하면 크린토피아 전국 매장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크린토피아 측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원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디딤, 강남에 '미식지대' 오픈



외식기업 (주)디딤(대표이사 이범택)의 주요 브랜드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디딤은 강남역 근처에 '미식지대'라는 이름의 식당가를 오픈하고, 자사 프랜차이즈 브랜드 '고래식당', '연안식당', '연안해물칼국수·해물짬'

을 비롯 직원 브랜드인 '백제원', '레스토랑 ILPALCO'까지 총 5개의 브랜드를 입점 시켰다고 밝혔다. 디딤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디딤의 브랜드를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에 디딤의 브랜드를 한 곳에 모은 미식지대를 오픈하게 되었다"며, "맛집이 많기로 유명한 강남에서도 디딤의 미식지대가 이름난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딤은 지난 2017년 외식기업으로는 세 번째로 코스닥상장기업이 됐다.

채선당, 보양식 신메뉴 '삼계샤브' 출시



샤브샤브 전문브랜드 채선당은 일찍 찾아온 여름을 맞아 보양식 신메뉴 '삼계샤브'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채선당 '삼계샤브'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에서 모티브를 얻어 개발한 메뉴로, 닭의 부위 중 선호도가 높은 닭다리 및 닭안심을 진한 닭육수에 넣어 샤브샤브로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와 각종 버섯, 감자 등을 더하여 닭고기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함께 제공되는 삼계샤브만의 특제 소스를 더하여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고단백의 닭고기뿐 아니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에 칼국수와 녹두찰쌀 죽까지 샤브샤브 코스로 즐길 수 있어 여름철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다. 채선당 삼계샤브는 '능이버섯 삼계샤브'와 '한방 삼계샤브' 2종으로 출시되었다.

못된고양이, 싱가포르서 프로모션



엔캣의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대표 양진호)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싱가포르 현지 매장에 프로모션을 지원했다.

못된고양이는 자사의 주요 해외 진출국 중 하나인 싱가포르에서 이번 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기념하고, 회담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본사 차원에서 싱가포르 매장에 이벤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못된고양이 싱가포르 2호점에서는 12일부터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전원에게 헤어 액세서리를 소진될 때까지 증정하며, 증정품은 못된고양이 본사에서 전량 지원했다. 한편, 못된고양이 싱가포르 2호점은 싱가포르 서부 지역 최대 상권인 주롱 이스트(Jurong east)에 위치한 유명 대형복합쇼핑몰 웨스트게이트몰에 입점해 있다.

탐앤탐스, 미얀마 양곤점 오픈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지난 9일 미얀마 양곤 공항에 미얀마 1호점 '탐앤탐스 양곤 공항점(TOM N TOMS Yangon Airport)'을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1호점은 최근 새로 지어진 양곤 공항 국내선 신청사 내 출국장 앞에 자리하고 있다. 그랜드 오픈일인 9일에는 미얀마의 유명 연예인 Sai Sai와 Poe Mamhe Thar를 비롯한 주요 인사와 현지 언론사에서 직접 매장을 방문하며 열띤 취재를 벌이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탐앤탐스는 오는 9월 미얀마 복합 쇼핑몰에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의 매장 입점을 확정 지으며 연내 3호점까지 매장 오픈을 계획 중이다. 또한 2020년까지 수도 양곤을 비롯해 네피도우, 만달레이 등 미얀마 주요 도시에 15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피자알볼로, 점주 휴가 프로젝트 '알:케이션' 서대전점에서 진행



수제피자 전문 브랜드 피자알볼로(대표 이재욱)가 지난 14일 점주 휴가 프로젝트 '알:케이션'을 서대전점에서 진행했다. '알:케이션'은 알볼로(Alvolo)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점주 및 직원들에게 걱정 없이 쉬 수 있는 하루를 선물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다.

지난 4월 김해내외점에 이어 진행된 이번 점주 휴가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피자알볼로 서대전점으로 이 매장은 지난 2014년 4월에 오픈하여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다. 특히 이 매장은 고객에게 친절하며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곳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장 중 하나이다. 점주는 이번 휴가 혜택을 통해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며 서로의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피자알볼로 본사는 서대전점 점주를 위해 매장 대리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휴가를 제공하고 워크숍 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다.

베스킨라빈스, '체리주빌레31' 출시



베스킨라빈스가 체리주빌레 출시 31주년을 기념하며 '체리주빌레31'를 새롭게 선보였다. '체리주빌레31'은 기존 체리주빌레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으로, 체리아이스크림에 마젠타 체리와 레드 체리, 초콜릿 칩을 더해 더욱 깊어진 체리의 풍미와 탱글탱글한 식감을 자랑한다.

체리주빌레는 지난 1988년 처음 출시된 이래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상큼한 체리의 조화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의 스테디셀러 플레이버 중 하나다. 지난 31년간 싱글컵 기준 누적 판매량은 1.84억개이며, 여기에 사용된 체리는 5.8억 개, 하루 평균 1만 6천개의 싱글컵이 판매된 수치이다. 이와 함께 베스킨라빈스는 '바나나 주빌레', '워싱턴 블루베리 주빌레', '파인코코 주빌레' 등 주빌레 아이스크림 3종을 선보였다.

김가네, 신메뉴 출시 기념 '스쿨어택'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김가네(회장 김용만)가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스쿨어택'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가네는 지난 4일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진접고등학교를 찾아 크래미와사비김밥, 치치김밥, 돈맛도시락 등 교실에서 즐기기에 좋은 김가네 2018 신메뉴를 선물하며 깜짝 파티를 진행했다. 이번 김가네 '스쿨어택'은 지난 5월 '먹고싶은 학생소환 사연 이벤트'를 통해 사연을 접수받아 총 10개 학교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 중 1곳은 인기 유튜브 '싱싱한 싱호'와 함께 방문해 '스쿨어택' 행사를 펼쳤다. 스쿨어택에 선정된 진접고 3학년 1반 학생들은 반 친구들과 소소하지만 잠시라도 고3이라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바르다 김선생, 상생협약식 이후 매장 수익률 6% 올랐다!



조스푸드(대표 나상균)의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 바르다김선생이 지난 1월 가맹점주들과 공경위 주재 2018 상생협약식을 가진 후, 상호간 상생협약 이행으로 매장 월평균 수익률이 상생협

약식 이전보다 6% 올랐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상생협약 내용으로 브랜드 로열티 14% 인하를 비롯해 필수품목 비율 축소, 물류비 인하, 원가율 개선, 점주 지원 프로그램 진행, 신메뉴와 마케팅 관련 사항 진행 시 상호 협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바르다 김선생은 점주와 매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바른케어', '바르게 한바퀴' 등을 진행하며 직접적으로 지원에 나섰으며, 트렌디한 신메뉴 개발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프로모션 지원 등으로 가맹점 수익 창출을 도왔다.

조스떡볶이, '창립 10주년 창업 지원 프로모션' 추가 진행



조스푸드(대표 나상균)의 떡볶이 브랜드 조스떡볶이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창업 지원 프로모션을 추가로 진행한다. 조스떡볶이는 지난 3월 진행된 창업 지원 프로모션에 대한 예비 창업자들의 상당한 관심과 추가 요청 문의로 인해 2차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업 지원 프로모션은 신규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안정적인 창업을 돕고자 마련한 지원책으로, 지난 3월 진행된 창업 지원 프로모션을 통해 최근 대구범어점, 하이원리조트점 등 약 10개 매장이 창업 지원 혜택을 받으며 문을 열었다.

조스떡볶이는 이번 프로모션에서도 1차와 동일하게 5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한다. 또 예비 점주가 원할 경우 자체 인테리어 시공이 가능하며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파리바게뜨, 매콤한 불맛 살린 '짬뽕 고로케' 출시



파리바게뜨가 바삭한 고로케 속에 중식 대표메뉴인 짬뽕의 맛을 담아 낸 '짬뽕 고로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짬뽕 고로케'는 스테디셀러 간식인 고로케에 불맛 가득한 중화요리 짬뽕의 레시피를 적용한 이색 제품이다. 바삭한 고로케 빵에 신선한 야채와 고기, 해산물을 매콤한 소스와 볶아낸 속재료를 풍성히 넣어 짬뽕 특유의 매콤한 맛을 살렸다.

이번 제품은 얼큰하고 중독성 있는 짬뽕의 맛을 입 안 가득 느낄 수 있어 시원한 맥주나 음료의 안주 또는 간식으로 즐기기에 제격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은 1,900원. 짬뽕 고로케는 매콤한 불맛을 살려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한 식감과 풍성한 속재료의 맛을 즐길 수 있다.

해마로푸드서비스, 봄바타 25억원 청년 창업 지원



식품유통제조기업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봄바타 청년 창업 지원을 실시한다. 봄바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선정해 매장에 필요한 점포 보증금, 시설비용, 권리금 등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며 가맹비와 교육비도 면제할 계획이다. 총 지원규모는 25억원 이상이며 서울, 경기 지역에 매장을 오픈할 방침이다.

만19세~34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봄바타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1차, 2차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31일 발표한다. FC사업부문 이재호 사장은 "이번 창업 지원은 청년실업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이 이를 해결하는 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촌에프앤비, 경북 장애인 탁구대회 후원물품 전달



교촌에프앤비(주)가 '제12회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협회 장기 장애인탁구대회'를 후원했다. 교촌치킨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경북 장애인 탁구대회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순살로 돼 먹기 편한 '살살치킨' 100마리와 '교촌 허니스파클링' 300개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에게 제공됐다.

한편, 교촌치킨은 '먹네이션(먹다+도네이션)'으로 알려진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재 출고량 1kg당 20원씩 적립해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후원·기부·봉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지난 3월에는 제주에서 열린 '2018 제주 세계좌식배구선수권대회'를 후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SPC그룹 라그릴리아, 여름 신메뉴 출시



SPC그룹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캐주얼 레스토랑 라그릴리아가 여름 시즌 한정 메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메뉴는 '라그릴리아 셰프가 들려주는 여름 이야기 (Chef's Summer Story)'를 주제로, 제철 과일과 해산물, 보양 식재료 등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라그릴리아는 셰프들이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경향을 벌이는 '시즌 메뉴 콘테스트'를 개최해, 수상한 메뉴 3가지를 포함해 총 6가지의 신메뉴를 선보인다.

한편, 라그릴리아는 시즌 메뉴 출시를 기념해 이탈리아 왕복 항공권 등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스크래치 쿠폰 증정' 프로모션을 8월말까지 진행한다.

장수돌침대 최창환 회장 나눔대상 표창 수여자로 선정



한국장애인복지사업회 상벌위원회는 나눔대상 표창 수여자 발굴을 위한 회의를 거쳐 장수산업 '장수돌침대'의 최창환 회장을 나눔대상 표창 수여자로 선정

했다고 밝혔다. 최창환 수상자는 18년간 봉사를 시작해 어려운 이웃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준 사람이 무려 1만명에 이른다.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2년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후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돌 침대 개발로 수익이 발생한 직후인 1992년부터 지금까지의 주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년 꾸준히 1억원 이상을 기부해 왔다.

커피베이, 2018 우수가맹점 35곳 선정 시상



커피 전문점 브랜드 커피베이가 '2018년 우수가맹점 시상식'을 갖고 있다. 커피베이 우수가맹점 시상식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생 협력의 일환

으로 매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맹점의 노고를 치하하고 가맹점이 커피베이의 가족이라는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가맹점 간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열고 있다. 올해 우수가맹점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장 운영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매출 등의 평가 기준 적용으로 총 35곳이 선정됐다. 백진성 커피베이 대표는 "이번 우수 가맹점 35곳을 포함해 항상 매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전국 가맹점주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커피베이는 가맹점과 본사의 상생 그리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국수나무, 中 연태시에 3호점 오픈



프리미엄 분식 브랜드 국수나무가 중국 연태시에 3호점을 오픈했다. 국수나무는 중국 산둥성 북동부 연태시에 연태 용왕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중국 청도의 향양로점, 홍콩화원점에 이은 중국 내 3번째 매장이자 연태 개발구 내 쇼핑몰에 위치한데다 근처 중국 자동차 제조공장 및 한국 기업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국수나무는 전했다.

국수나무는 깔끔하고 넓은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 20대부터 가족단위 고객 등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생면과 신선한 돈육 등 건강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바탕으로 한 메뉴를 구성했다. **KFN**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되어야...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화

가맹사업법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주'라 한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으로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한 불만이 자주 등장한다. 많은 분쟁에서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부풀려져 있어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가맹본부는 장차 가맹점주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맹계약 체결 시에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공하더라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임의로 선택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및 가맹사업법시행령에 있다. 즉, 2013. 8. 13. 신설된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였고, 2014. 2. 11. 신설된 가맹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맹본부가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이거나 가맹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맹계약 체결 시 반드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심지어 가맹사업법 제9조 제7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WRITE 김종우

법무법인 한림 대표변호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고문변호사, 자문위원
2017년 프랜차이즈혁신위원회 위원
한국프랜차이즈전문가포럼 초대 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한국프랜차이즈법률세무연구원 고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발주 프랜차이즈 관련 연구용역 수행

국제적 보편성과 현실성 상실

이러한 가맹사업법 내용은 국제적 보편성과 현실성을 상실한 것이다. 한국 가맹사업법의 모태로 볼 수 있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프랜차이즈 규칙이나 각 주(State)의 프랜차이즈법에도 Franchisor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은 없고 단지 FDD(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가맹희망자(Prospective Franchisee)가 장래의 매출액이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도록 Franchisor의 재무 현황(Financial Performance Representations)을 필수적 항목(Item 19)으로 정하고 있어서 가맹희망자는 예상매출액에 관한 판단 자료를 제공받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Franchisor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공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예상매출액에 대한 실질적 근거 자료를 FDD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기재된 근거 자료가 허위일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반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규모 Franchisor에게 프랜차이즈 등록 및 갱신 과정에서 상당한 의무 면제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규모 Franchisor의 경우 업무의 신뢰성이 높고 가맹점주의 피해가 구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입법부는 무슨 이유로 소규모 가맹본부보다 대규모 가맹본부를 더 불신하여 더욱 높은 강도의 규제를 하려는 발상을 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든다.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가맹사업법에 해당하는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에서 예상수익에 관한 광고선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가맹본부가 예상수익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를 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향후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의 국가에서도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고, 더구나 한국과 같이 국가의 감독기관이 나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제공을 독려하거나 권장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다.

해당 의무로 인한 현실적 문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가맹사업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다소라도 부실하게 제공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분쟁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빈발하게 된다.

또한 가맹사업법에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의 제공을 강제 한 결과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가맹계약의 체결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 예상매출액의 산정근거나 방법을 둘러싼 시비가 발생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분쟁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규 제정 이후의 부작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오로지 규제 목적만을 가지고 경솔하게 법을 만든 입법부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현실적 한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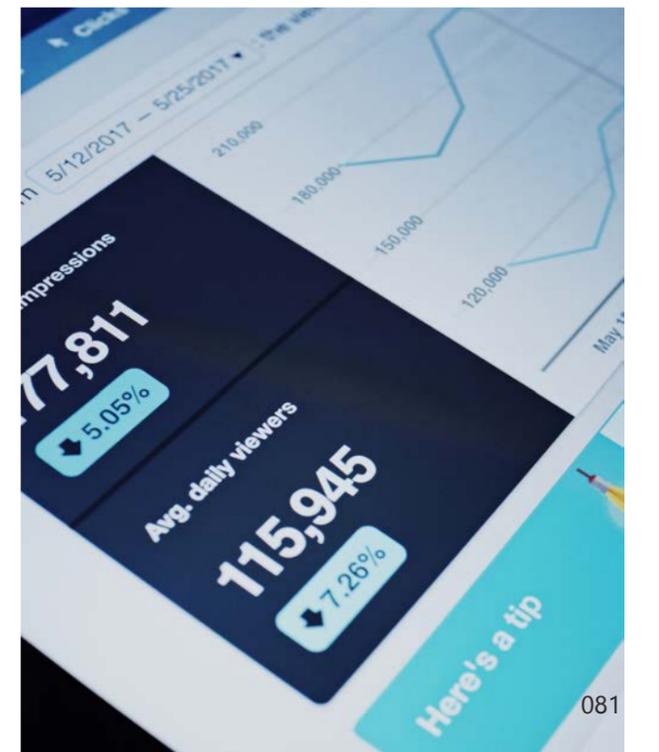
이해하지 못하고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법시행령을 융통성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여 경솔하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이라고 판단해 온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다.

즉, 특정한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을 예상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상권의 특성, 상권의 사후적 변화, 가맹점주의 능력, 국내의 경제환경, 국가 정책(예컨대 최저임금제, 신용카드수수료 정책 등), 기후나 계절적 요인, 업종의 경쟁 정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매출액과 수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애당초 예상매출액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예상매출액의 산정을 가맹본부에게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법시행령에서는 인근 가맹점들의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특정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을 매장의 단위면적인 m²당으로 환산하여 세밀하게 산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다른 가맹점의 매출, 그것도 직전 연도의 매출을 기준으로 어떻게 또 다른 가맹점의 장래 매출을 예상한다는 말인가? 이런 이유로 외국의 변호사들이나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은 "한국은 신의 영역을 가맹본부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와 관련된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외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악법이고, 입법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제도의 폐단을 없애는 방법은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상실한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시행령 규정으로 인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원인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유발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하여야 하고, 미국의 경우와 같이 가맹본부에게 자율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되 그 근거자료에 허위 또는 과장의 정보가 포함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K7]





최인용세무사의 프랜차이즈 절세 가이드 부부의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방법

부부간의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재산의 관리는 전통적으로 합해서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부가 각각 자신의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 우리나라 민법과 세법은 '부부 별산제'의 개념을 두고 이를 각각의 재산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통장이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일까?



PROFILE

WRITE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전)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강남지사 대표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세무사
마곡지구협의회, 하남미사지구주협의회 자문세무사

첫째, 통장 관리는 부부 각각 관리가 유리

부부간의 통장은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부부간의 금융재산을 통합하여 사용하다 보면, '증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재산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간에 통장을 구별하지 않고 쓰다 보면, 10년간 생활비를 제외하고 6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년의 부부들의 경우에 부부간 통장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자금의 이동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고, 상속은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후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통장은 생활비 이상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염두에 두고 부부가 각각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유리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 시에 각각 세금이 있다.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차이가 없다. 취득 시의 세율은 4% 정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나 양도에 관한 세금을 고려하면, 공동명의로 더 유리하다. 부동산을 보유 시에는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에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주택 이상인 상황이나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선 공동명의로 세율 분산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 내게 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어 부동산의 인원을 나눌수록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특히 소득세는 6%에서 42%의 누진세율 구조의 세금으로 되어 있어서 임대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시 소득이 나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을 버는 것으로 가정하면 단독명의로 때에는 약 2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하는 경

우 약 14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어 유리하다.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분산효과가 있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로 유리하다.

셋째, 금융자산은 교차보험으로 절세

금융자산은 보험이나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이 있다. 대부분 개별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나, 부부의 교차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계약자는 본인이 피보험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 수익자를 본인으로 들어놓는다면, 상대 배우자의 위험이 현실화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의 면에서 크게 절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증여세의 세율도 30억 원이 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가입한 경우에 상속 과표에 포함된다면 최대 5억 원이나 상속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교차보험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부부간의 통장관리나 재산관리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명의로 보유하며 서로 교차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현명하다. **KFM**

Tip. 부부의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방법

1. 통장관리는 부부 각각 관리가 유리하다.
 - 금융자산은 통합관리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
 - 부부간의 증여한도는 10년간 6억원
2.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유리하다.
 - 보유시 임대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적용
 - 양도시 양도소득세도 낮은 세율 적용
3. 보험상품은 교차보험이 유리
 -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 각각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상속세 절감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활성화 시급하다

서비스 프랜차이즈 활성화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진화시키고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의 효과적인 해결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서비스 프랜차이즈의 활성화는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 뿐 아니라 외식업 편중에 따른 과열경쟁의 부작용 해소와 권리금, 보증금, 시설비 등으로 높은 창업실패의 리스트를 줄이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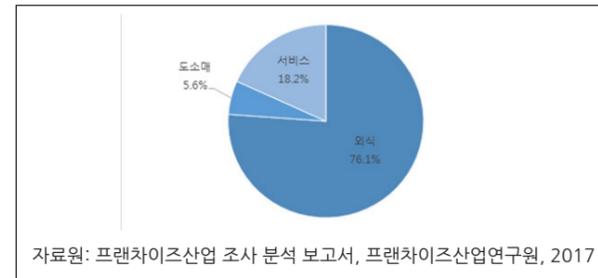
WRITE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CFE, 경영학박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유망 서비스 아이템 발굴·육성 위해 노력해야

국내 서비스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아이템이 미국·일본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며,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이 취약하다. 2017년 11월 23일 기준 정보공개서 등록 수 총 5,636개 중에서 외식업은 76.1%(4,291개), 도·소매업은 5.6%(318개), 서비스업은 18.2%(1,027개)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표〉 업종별 정보공개서 등록 수



자료원: 프랜차이즈산업 조사 분석 보고서,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2017

국내 서비스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영세하지만 많은 점포수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의 프랜차이즈화와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 자영업자의 육성과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증가에 따른 저출산 및 육아문제, 고용 없는 성장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노인요양원 및 노인용품렌탈, 실버시터, 베이비시터, 건강증진이나 스트레스 해소 관련 업종인 헬스클럽이나 릴렉션 샵 등과 같은 아이템의 프랜차이즈 활성화가 시급하다. 또한 영세하면서 다점포군을 구성하고 있는 분야인 인테리어, 카센터, 꽃집, 애완동물 관련 사업, 장례서비스업, 청소업, 컨설팅회사, 직업소개소, 심부름센터, 쿼서비스, 간판, 인쇄소, 리폼 및 리페어 사업 등의 프랜차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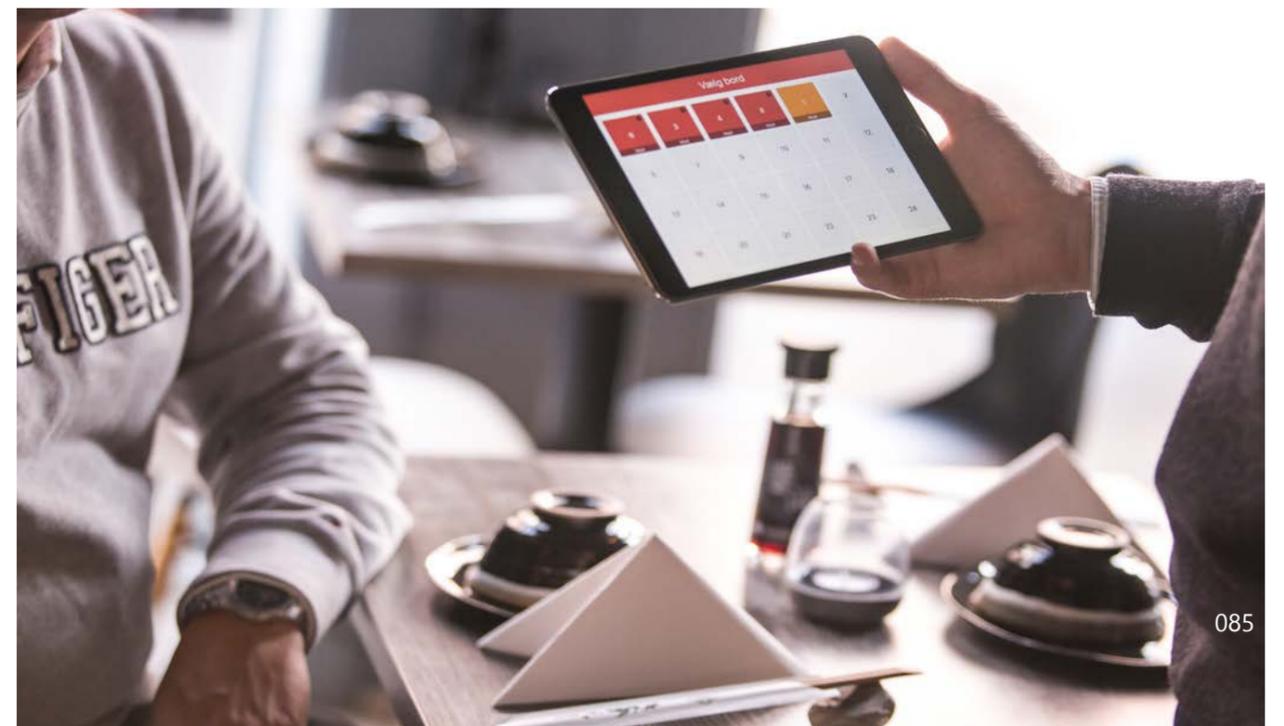
조화를 통해 관련 업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고객서비스 품질도 높이고 노력해야 한다.

서비스 프랜차이즈 활성화 위한 정부 지원 강화 필요

정부의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지원제도가 업종의 특성이나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비스업의 가맹본부들이나 가맹점들이 타업종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외식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나 프랜차이즈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통산산업자원부 외에도 국내의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 소매업의 경우도,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 등의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외식업이나 소매업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여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나 통산산업자원부의 지원정책에서도 타업종에 비해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 관할하는 부처가 서로 다르고 정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려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 창업활성화와 자영업 지원 정책기조를 바꾸어 서비스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정부지원 교육과정 선정 시 현재 외식업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업 관련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서비스 자영업자와 서비스 가맹점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시설개선·운전에 필요한 제반 자금도 늘려야 한다. 특히 서비스업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시장 시찰이나 우수 기업의 견학제도 등 국내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KTW



근로시간 단축, 제대로 알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번 5월 29일자로 시행되었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입사 1년 차 신입 사원이 1달 개근 시 1일씩 생기는 연차유급휴가가 다음 해 발생하는 2년 차의 연차유급휴가가 15일과 별도로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였더라도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게 되면서 2년 차까지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됨으로써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다음해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재직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이하에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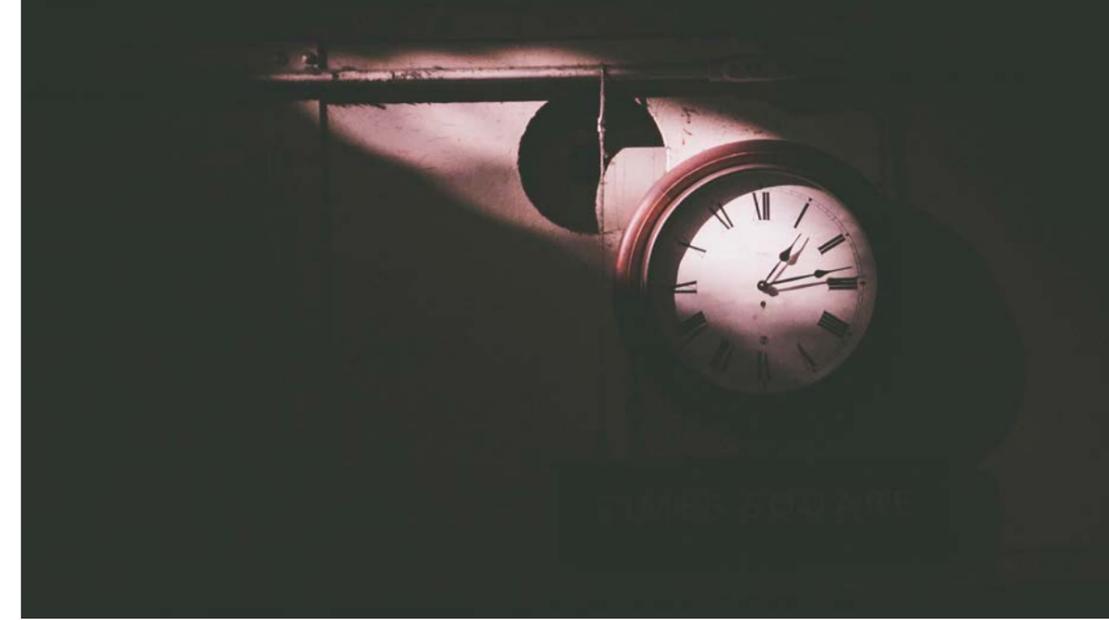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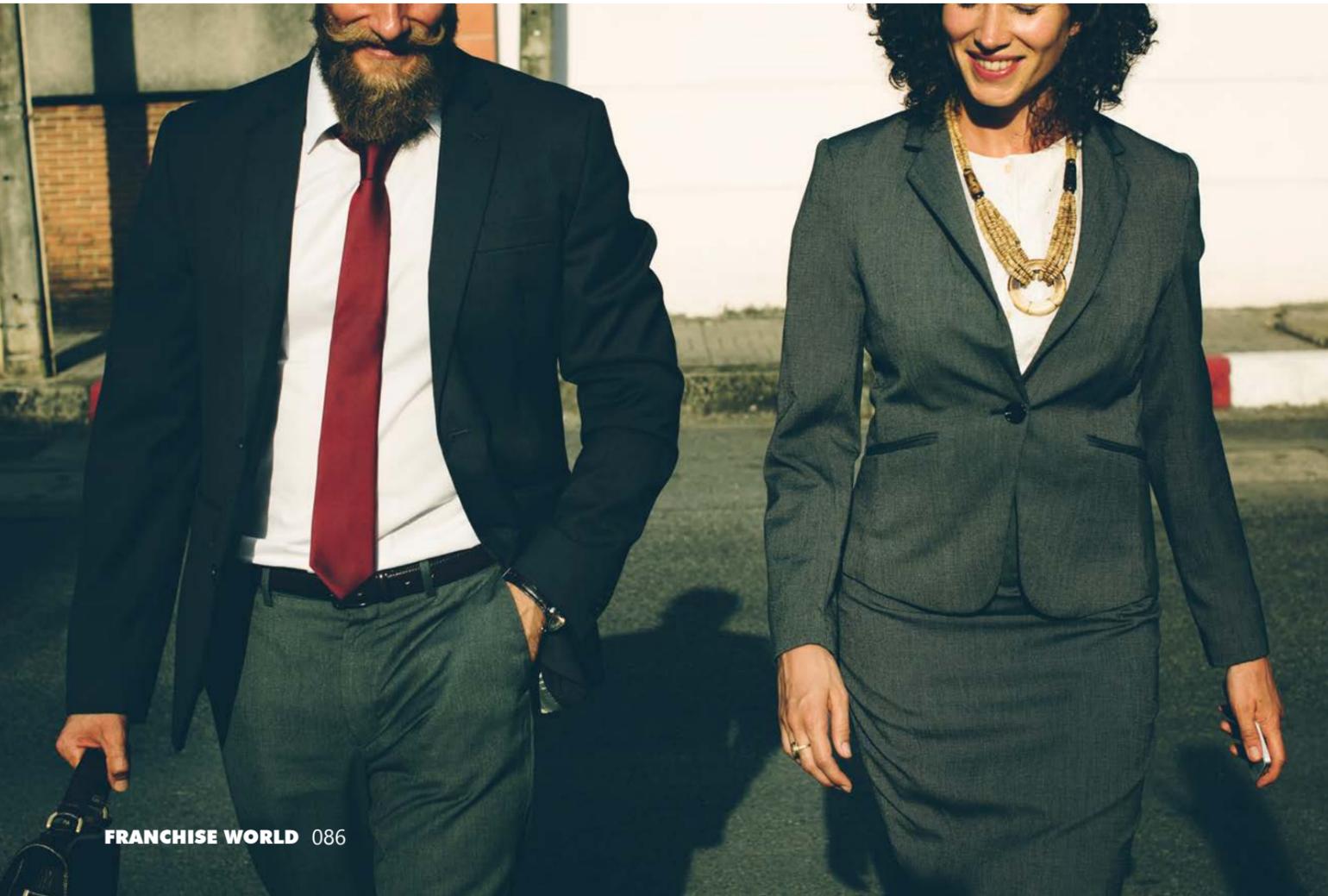
☎ 010-5383-7766 / 02)521-3588 (사무실)

✉ shin@psj.kr



WRITE 신향철

삼성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사)중앙진폐재활협회 법률 고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전)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



1. 연장근로시간 한도 축소

일반적으로 '1주'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법조문을 해석할 때, 이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휴일은 연장근로 산정 범위인 '1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라 많은 사업장들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예컨대 토, 일요일 각 8시간) = 68시간"으로 판단하여 운용해 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되면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모두 합하여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휴일 근로시간 12시간 = 52시간"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는 18세 미만 연소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도 개정되어(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2018년 7월 1일 시행),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기존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까지 기본근로가 가능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 기본근로가 가능하며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2.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한 시행일

위와 같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축소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직영점은 본사와 지점을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지만, 가맹점은 독립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맹본부나 다른 지점과는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업장 규모를 파악하여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최대 60시간의 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주 52시간에 더하여 최대 8시간의 연장근로, 즉 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면 된다. 다만 이때 18세 미만의 연소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근로시간 특례 업종 대폭 축소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7월 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근로시간 특례 대상 업종을 대폭 축소하여, 5개 업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특례 업종에 해당되었던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업종은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휴일근로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행일을 확인한 뒤, 시행일에 맞추어 영업시간 조정, 교대제 시행 등 여러 대응책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KTW**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간연출을 위한 구성요소 Part 2

햇살 가득 눈부신 향기가 아련한 추억을 느끼게 하는 요즘 가꿈은 고즈넉한 공간에서 잔잔한 조명 빛에 Rebecca Pidgeon의 Spanish Harlem에 흠뻑 젖어 있는 호사를 누리는 나를 꿈꾼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은 남녀노소 모두 살벌한 경쟁 속에서 숨 고를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게 일상화 되어 버린 지 오래다. 편안한 나만의 시간을 바라는 건 아마도 우리 모두의 바람인지도 모르겠다.

프랜차이즈 개점을 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수고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업계의 현실을 놓고 본다면 더욱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일 것이다. 수없이 많은 개점 후보지를 물색하고 일일이 발품을 팔아 눈으로 확인하는 수고는 물론 짜인 예산 안에서 최고의 가맹점을 만들기까지의 어려움을 그 누가 알겠는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개원지를 정하였다면 이제 가맹점 내부의 인테리어 공간계획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디자인 프로세스는 기획·조사·설계·시공·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되며, 공간의 다양한 형태와 특성화된 공간 프로그램을 각각의 공간에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좋은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는 주의 깊게 계획된 프로세스에서 시작된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간을 이끌어가는 과정은 디자인 그 자체만큼이나 세심한 분석과 창의적 사고가 요구된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간연출 구성요소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공간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에서 시작되지만, 그의 완성에는 이들 요소들의 집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요소가 다양할수록 하나의 통합된 디자인 개념을 필요로 한다. 디자인 의도가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공간을 구성하는 디자인 요소의 관련된 이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정제되고 마무리되는 정도에 따라 공간 분위기는 향상된다.

문과 손잡이 (door & Door-Holding Device)

문은 각기 다른 방으로 구분시켜서 개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실내에서의 문의 용도는 출입의 기능, 환기, 통풍의 기능, 방범의 기능 등 여러 가지이지만 인테리어의 장식적 요소로서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간의 용도와 인테리어 계획에 맞추어 문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미적 분위기를 높일 수 있다. 문의 손잡이는 대부분 금속품으로 분류되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의 재질이나 형태, 마무리 상태 등과 함께 문을 아름답게 꾸미는 요소가 된다.

조명 (lighting)

조명은 실내의 필요공간을 밝게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으나, 방 공간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각 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조명기구의 형태가 고려되어야 하며, 램프의 색과 배광방법도 주의깊게 계획되어야 한다. 근래에는 광원의 종류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색다른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할 때 기능과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명기구를 지혜롭게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는 기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가구 (furniture)

가구는 비어있는 실내공간을 인간과 연결시켜 각각의 공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 공간에 맞는 가구를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공간은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가구는 또한 그 디자인에 따라라 각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가구의 색, 재질, 모양, 크기에 따라 공간이 고전적이 되고 현대적이 되며 경쾌하거나 조용한 분위



WRITE 이상권

PROFILE
(주)라움 대표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독일 필른대학 디플롬 취득
나산종합건설 설계감리부 팀장
(주)한화 /서울프라자호텔 프로젝트팀장

저서
<실내건축공간계획>
<건축의 형태의장어해>
<건축투시도법> 등

☎ ㈜라움 02-525-3363
✉ raum21@hanmail.net

기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구는 그 기능과 디자인이 선택의 핵심이 된다.

수납공간 (Planning of Storage Space in Apartment)

실내공간을 세련된 분위기로 쾌적하게 꾸미려면 실내를 정리정돈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리와 수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간직할 물건이나 사용할 장소를 고려하여 수납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경우에도 한정된 공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효율적인 수납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은 활동 능력을 올릴 뿐만 아니라 보다 편안하고 정돈된 생활을 하는 길이 된다.

장식품 & 소품 (decoration)

장식은 개성과 생기를 불어 넣어 따스한 정감으로 실내를 채워준다. 장식은 또한 센스와 아이디어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만의 개성 있

는 공간을 연출해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흔히 인테리어를 완성하고 허전한 공간에 무언인가를 장식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진열할 장식품을 찾는 것보다는 인테리어의 계획단계부터 전시할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지나친 장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분위기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

실내원에 (horticulture)

실내원예는 공간에 최종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인테리어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식물은 그 푸르름으로 현대문명에 찌든 사람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해 주며 인위적인 건축물을 자연스런 분위기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이다. 실내환경은 옥외에 비해 식물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보다 쉽게 조절 할 수 있으므로 각 식물의 특성을 잘 파악하면 제한된 실내공간에서 자연을 일상의 삶 속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 **KTN**

문과 손잡이

- 출입문의 개폐에 필요한 스페이스를 고려한다.
- 사람의 출입 외 가구의 반입이나 휠체어 출입도 감안하여 치수를 결정한다.
- 인접공간과의 관계 및 재해시의 행동을 고려하여 개폐방법을 결정한다.
- 공간의 기능에 따른 문의 재질, 색상, 크기 등을 결정한다.
- 문이 사용되는 공간특성에 따라 손잡이 방식과 하드웨어를 선택한다.
-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 등을 감안한 손잡이를 선택한다.

장식품 & 소품

- 각 개실의 특성에 따른 장식품의 디자인, 색상, 크기, 위치를 결정한다.
- 동선 및 시선의 장애여부를 고려한 설치계획을 세운다.
- 장식품을 너무 많이 늘어 놓지 않도록 유의한다.
- 장식벽면에 배치되는 집중조명은 실내조명역할도 할 수 있게 한다.
- 자연채광을 이용하여 장식품을 돋보이게 배치한다.



조명

- 기능에 알맞은 빛의 양, 질, 방향, 위치 등 조명의 제 조건을 고려한다.
- 조명기구의 크기, 모양, 재질, 색, 수량, 설치법, 배광법 등을 검토한다.
- 전원 스위치의 위치와 사용되는 콘센트 등을 점검한다.
- 소비전력과 기대수명 등 사용 조명기구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 조명기구는 적절한 조도를 얻기 위한 목적 외 공간연출의 포인트 요소로 활용한다.

가구와 수납

- 공간이 요구하는 고유의 라이프 사이클, 생활양식에 따른 가구계획을 세운다.
- 공간의 기능에 따라 적합한 가구의 배치, 모양, 크기, 재질, 색 등을 결정한다.
- 사람의 동선, 시선, 동작, 치수 등과의 상관성을 점검한다.
- 인체 크기에 따른 수납가구의 사이즈를 고려한다.
- 수납물의 양, 수납방법 등 수납할 물건들의 양과 내용을 검토한다.

실내원에

- 실내공간에 자연을 도입하여 인공환경의 경직되기 쉬운 분위기를 생기 있는 공간으로 순화시킨다.
- 각 공간별 배치할 식물의 종류, 크기를 결정하고 관리의 용이성을 점검한다.
- 각 공간의 온도, 습도 등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식물을 선택한다.
- 계절에 따른 개화시기를 점검하여 그 종류를 선택한다.
- 가장 좋은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게 높이 및 위치를 결정한다.

SEO JEONG JA



서정자 화가

경남 통영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수료
서울미술협회회원
씨울회회원, ICA회원, 홍미회원
저서 <바람이 달다> (2017 지식공간)

서정자 작가는 지금까지 10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올가을 하이데라바드(인도)에서 11번째 개인전 준비를 하고 있다. 100회 이상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외 장단편집 6권, 정영희의 <아프로디테의 숲>, 시몬 드 보바르의 <편안한 죽음>의 표지에서도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 연세대학교사회교육원, 전경련 IMI 국제 경영원, 교보생명, 전경련 하계포럼 등에서 특강을 진행했으며, 법원 공무원 연수원, 예쁘리 민속박물관, 자유권 트리클럽, (주)아이스테크, 코인, 스페인대사관, 동부센트레빌, 인도대사공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개인전

- | | |
|--|---|
| 2017 제 11회 개인전 Kalakriti art gallery Hyderabad, The Cultural center of Vijayawada (India) | 2010 제 6회 개인전(관훈갤러리, 서울) |
| 2016 제 10회 개인전(ABLE FINE ART Gallery, 뉴욕) | 2006 제 5회 개인전(키미갤러리, 서울) |
| 2015 제 9회 개인전(미술세계갤러리, 서울) | 2004 제 4회 개인전(BoA Art Gallery, Canada Vancouver) |
| 2012 제 8회 개인전(노암갤러리, 서울) | 2002 제 3회 개인전(관훈갤러리, 서울) |
| 2010 제 7회 개인전(Scola Art Center, Beijing China) | 2001 제 2회 개인전(관훈갤러리, 서울) |
| | 1999 제 1회 개인전(인사갤러리, 서울) |

흰색은 모든 가능성으로 가득한 침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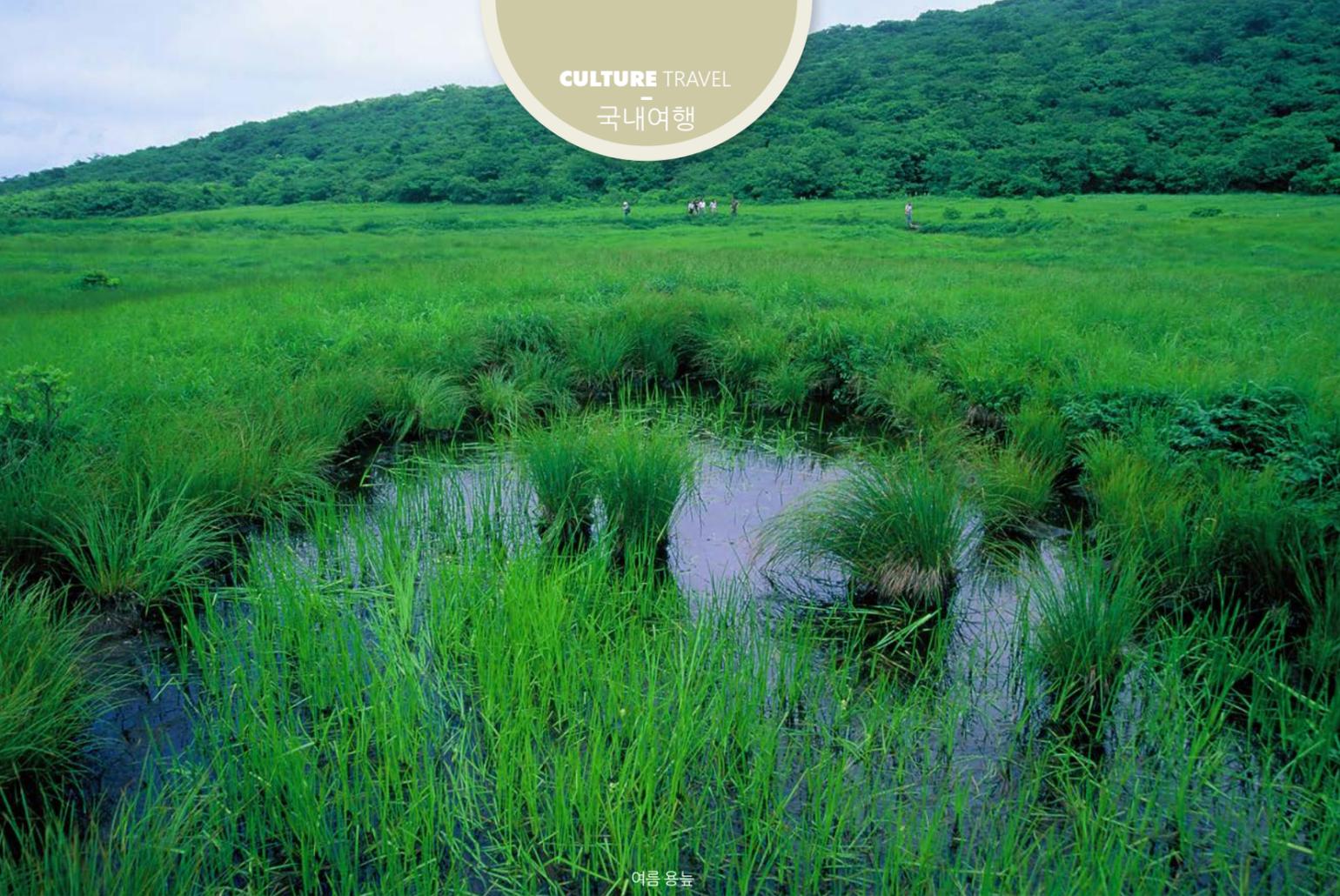
—
세상이라는 사유의 공간.
안개 낀 새벽빛은 암갈색.
깊어가는 밤하늘은 청회색.
계절에 따라서 하나하나 달라진다.
공기도, 빛의 느낌도, 우리의 호흡도.
그림도 그때그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채색.
계속 쌓여가는 마티에르.
시간은 쌓는 것이다.
그 흔적들을 남기는 것이다.
결국, 그림은 그때그때의 다큐멘터리인 것이다.

White is silence full of all possibilities

The world is Space for thinking,
Misty dawn light is burnt umber.
Deepening night sky is slate grey.
Everything changes one by one as the seasons go by. So does the air, the sense of light, and even our breath. The painting also changes depending on the flow of time. Changes in coloration with flow
Continuously—accumulating Matiere.
It is to leave the trace.
At the end, paintings are documentaries at every moment.

Untitled 227 x 182cm Mixed media on canvas





여름 용늪



가을 용늪



용늪의 이탄층 인제군 제공

대한민국 람사르 습지 1호 강원 인제군-인제 대암산 용늪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1304m) 정상 인근에 자리 잡은 용늪은 국내에서 유일한 고층습원(식물 군락이 발달한 산 위의 습지)이다. 일찍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73년 용늪을 포함한 대암산 전체가 천연기념물 246호로 지정되었고, 1989년에는 용늪만 따로 생태계보전지역이 되었으며, 1997년에는 대한민국 최초 람사르협약 습지로 등록되었다. 람사르협약은 물새가 서식하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01번째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했다.

용늪 탐방은 대암산 동쪽 인제군과 서쪽 양구군에서 각각 출발한다. 아이와 함께라면 개인 차량으로 용늪 입구까지 이동하는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코스가 좋다.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용늪을 둘러보고 대암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등산로는 비교적 평탄하지만 막바지에 밧줄을 잡고 올라야 하니,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에는 주의할 것.

용늪평화생태마을에서 출발해 용늪까지 오르는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코스는 왕복 5시간 남짓 걸린다. 올해 10월 람사르협약의 습지 도시 인증을 기다리는 용늪평화생태마을은 용늪의 생태를 미리 볼 수 있는 전시관과 펜션, 식당 등을 갖췄다.

생태계보전지역인 용늪을 탐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인제군 생태관광 홈페이지(<http://sum.inje.go.kr>)와 양구생태식물원 홈페이지(www.yg-e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제군은 방문 2주 전, 양구군은 2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하루 탐방 허가 인원은 인제군이 150명, 양구군이 100명이다. 용늪 탐방 기간은 5월 16일~10월 31일이며, 날씨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장 다양한 생물을 볼 수 있는 탐방 적기는 8월이다.

용늪은 습지보호지역을 가로지르는 탐방 데크를 사이에 두고 큰용늪과 작은용늪, 애기용늪이 있다. 웅덩이처럼 자란 습지식물이 바람에 따라 출렁이는 습지 전체 면적은 1.06km에 이른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지에 용이 쉬어 갈 만한 높이 생긴 것은 4000~5000년 전이다. 특이한 지형과 기후 덕분에 끈끈이주걱과 비로용담, 샷사초 같은 희귀 식물이 군락을 이뤘다. 산양과 살, 하늘다람쥐 같은 멸종 위기 동물도 산다. 평균 1m, 최대 1.8m에 이르는 용늪 이탄층은 수천 년에 이르는 식물의 잔해가 그대로 남아 한반도의 식생과 기후변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용늪평화생태마을에서 차로 10분쯤 가면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 닿는다. 삼팔선 넘어 휴전선 가까이 위치한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은 DMZ 일원의 생태계와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후세에 전달하기 위한 연구·교육기관이다. 한국전쟁의 역사와 의미, 용늪을 비롯한 DMZ의 생태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되었고, 생태 체험과 민통선 현장 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제읍을 가로지르는 소양강 변에 인제산촌민속박물관과 박인환문학관이 나란히 있다. 인제산촌민속박물관에서는 강원도 인제의 산촌 생활을 계절별로 전시한다. 각종 유물과 영상, 디오라마, 체험을 통해 산촌 사람의 생활을 생생히 알아볼 수 있다. 인제가 고향인 시인 박인환을 기념해 세운 박인환문학관은 그가 활동한 1940~1950년대 명동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관이 인상적이다.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을 지난 소양강은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쳐진 강이다. 두 강이 만나는 자리에 조선 시대 정자인 합강정이 있다. 1676년(숙종 2)에 처음 지었다가 불에 탄 것을 1756년(영조 32)에 다시 지었다. 정자 옆에는 가뭄이나 전염병을 막기 위해 제사를 지낸 강원도 중앙단이 보인다. 원대리의 자작나무 명품숲은 자작나무 수십만 그루가 있는 순백의 세상이다. 입구 주차장부터 한 시간 남짓 임도를 걸으면 하얀 숲을 만난다. 남면 수산리에 자작나무 숲이 하나 더 있는데, 원대리 자작나무 명품숲이 더 크고 둘러보기 편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TIP]**



박인환문학관



용늪을 가로지르는 생태탐방로 인제군 제공



용늪전시관 전시실 구안희 촬영



자작나무수수교길 구안희 촬영

<당일 여행 코스>

용늪평화생태마을 → 대암산 용늪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1박 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 용늪평화생태마을 → 대암산 용늪 →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둘째 날 / 합강정 → 인제산촌민속박물관 → 박인환문학관 → 원대리 자작나무 명품숲

○ 주변 볼거리

백담사, 만해마을,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설악산, 곰배령, 방태산 등

협회-식약처, '식품안전관리 강화' MOU 체결 자율 위생안전 관리, 음식문화 개선 상호협력...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위생수준 향상 도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와 함께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자율 위생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협회는 지난 6월 11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본부에서 식약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015년 10만여 개에서 2017년 11만여 개로(증가율 5.0%) 늘어나는 등 외식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업계의 자발적인 식품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왼쪽 3번째부터) 조운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병역 협회 명예회장, 이용재 협회 상임부회장,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



(왼쪽부터) 조운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협약식에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병역 명예회장, 이용재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류영진 처장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련 자료를 제공 및 교육하여 지원하겠다”면서 “협회와 업체에서도 자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 준다면 소비자들도 믿고 신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회장은 “국민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눈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으며 철저한 위생관리는 업체와 국민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면서 “식품안전사고의 예방은 사후 단속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한 만큼 우리 협회는 식약처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업계 스스로 식품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향후 협회는 식약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물 혼입 방지, 보관기준 준수 등을 위한 자율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당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 ▲위해식품의 신속회수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

또한 식약처는 자율위생관리 매뉴얼, 식품안전 관련 정보, 위생강사 등을 지원하며,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회원사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사회봉사위원회 제31차 사회봉사...영락보린원 후원 및 봉사활동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아동 양육시설 찾아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 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김익수)가 6월 20일 회원사 및 협회 사무국 임직원들과 용산구 영락보린원(원장 김병삼)을 찾아 보호 아동 120여명을 후원하고 식사와 간식을 배식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사회봉사에는 최근 사회공헌활동 누적액 1천억원을 돌파한 (주)SPC(파리바게뜨), 사회공헌활동 단체 (사)본사랑을 별도로 설립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주)본아이에프(본죽), 국내에 이어 최근 미국까지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을 확장한 사과나무(주)(커피베이) 등을 비롯, 돈가스클럽, 채선당, 토프레소, 남다른감자탕, 60계치킨, 피자마루, 노랑통닭, 못된고양이 등 많은 협회 회원사들이 동참했다.

또한 협회 사회봉사위원장 김익수 채선당 대표, 부위원장 오종환 토프레소 대표 등 사회봉사단원들과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 등 사무국 임직원들은 치킨과 피자, 김밥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나눠 주고 대화를 함께 나눴다.

한편 협회 사회봉사위원회는 2013년 출범 이후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를 모토로 매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사회봉사활동 후원품은 매일 100~150인분 상당으로 채선당(금일봉), 보하라(라면), 토프레소(견과류), 미소바이오(수산물), 본죽(죽), 파리바게뜨(빵), 못된고양이(양말), 커피베이(미니파운드케이크·주스류), 셀렉토키피(머핀), 좋은나라(휴지), 카페믹스(계절과일), 미스타세프(셀링탕), 60계치킨(치킨), 노랑통닭(치킨), 돈가스클럽(피자·콜라), 피자마루(피자·콜라), 피자나라치킨공주(피자·치킨), 바푸리숯불김밥(김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떡)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협회, 산자부와 ‘코리아세일페스타’ 협력 9.28~10.7 10일간 개최...프랜차이즈 매출 증대 위한 프로그램 진행



협회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간 합동으로 펼쳐지는 국내 최초 글로벌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며,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 쇼핑행사, 관광행사, 문화축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한류스타가 함께 하는 K-pop 개막축제와 주요 상권에서의 대표 할인상품 홍보 및 소규모 콘서트 등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특히 프랜차이즈 분야에서의 본부-가맹점 협력으로 소비증진과 지점의 매출확대를 도모한다. 참여 업체는 정부 차원의 홍보기회를 활용하여 국내외 인지도도 크게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인을 위해 중국 등 신 남방국가 지역에서 온라인 할인전을 개최하고 한류스타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는 등 ‘방한-축제-소비’의 동시 경험을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제23기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 수료식

이론·실무 겸비한 가맹본부 최고경영자 역량 강화 교육 과정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가 주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원장 장재남)이 주관하는 '제23기 프랜차이즈 최고 전문가 과정' 수료식이 6월 14일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15주간의 과정을 이수한 33명의 수료생과 함께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한국프랜차이즈전문가포럼 이재근 회장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수료생들은 협회장 명의 수료증을 수여받고 최고전문가 과정 동문회인 한국프랜차이즈전문가포럼 동문에 가입하는 기쁨을 함께 누렸다.

제35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입학식

'프랜차이즈의 꽃' 슈퍼바이저 실무 역량 강화 위한 10주 과정 '첫 발'



매장 관리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가 주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원장 장재남)이 주관하는 제34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전문가 과정 입학식이 6월 16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34기 과정에는 페라카나, (주)에스앤큐플러스, (주)멕시카나, (주)홍익 등 20여 곳의 가맹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임원들이 참여해 8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주간 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징, 상권분석, 인사노무, 가맹법률, 세무회계, 협상스킬, 마케팅 등 실무자들의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이 마련돼 있으며, 수료생들은 협회가 주최하는 슈퍼바이저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 한편 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

'가맹분야 사업주 맞춤' 노무관리 6월 정기 무료교육

일선 현장 근로조건 자율개선으로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모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6월 22일 고용노동부 시행 가맹분야 사업주 특화 노무교육과 관련해 6월 정기 무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온누리노무컨설팅 이윤형 공인노무사가 50여명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윤형 노무사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근로자들의 노무관리와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들과 주요 법 위반 사례들 위주로 어렵고 복잡한 노동 관계 법령을 쉽게 풀어 나가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노동관계 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 개선을 위해 공고한 '2018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지원사업' 가맹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10월까지 무료 노무교육을 시행한다.

정기 교육은 서울 서초동 협회 교육장에서 매일 마지막 주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비용은 무료다. 가맹본사에서 출장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가맹사업 전문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강사와 교육장 대관료 일부를 지원한다. 수강을 원하는 경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ikfa.or.kr\)](http://www.ikf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과 일정 등은 [교육사업팀\(hshan@ikfa.or.kr, 070-7919-4157\)](mailto:hshan@ikf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협회 산악회, 북한산 문수봉 등정

계곡 물소리·시원한 숲길...초여름 산행 즐거움 만끽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악회(회장 정인기, 풀잎채 대표)가 6월 16일 6월 산행을 가졌다. 정인기 회장을 비롯해 26명이 참석한 이번 산행지는 북한산 문수봉.

북한산은 서울 산의 대명사격으로, 근교의 산 중에서 가장 높고 산세가 웅장하여 예로부터 서울의 진산으로 불렸다. 최고봉인 백운봉(해발 836.5m)을 비롯해 32개의 봉우리가 있으며, 문수봉(해발 727m)은 의상능선의 마지막 봉우리다.

산악회 안혜숙 대장은 "이번 산행은 북한산성입구에서 출발해 대남문을 지나는 비교적 안전한 코스로, 시원한 숲길과 계곡 물소리가 어우러진 여름산행 최적의 코스"라며, "완만한 트레킹과 함께 작은 설악을 연상케 한다"고 설명했다.

산악회는 매달 셋째 주 정기 산행을 갖고 있으며, 여선구 대장(연두커피 인터내셔널)과 안혜숙 대장(레이디플라워)이 산행 전,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회 소식

대구경북지회 소식

지회장 : 이재백

6월 행사내용



봉사단 활동-지역아동센터 방문

대구경북지회에서는 매월 1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봉사단은 6월 22일(금) 대구 행복한울스쿨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요리교실을 진행하였다. 이번 봉사는 10개 업체 회원사가 참여하여 만남의 장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대구경북지회 봉사단은 매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외식업 하이퍼포머 점장교육 수료식

6월 25일 매주 월요일 4주간 진행했던 [2018 외식업 하이퍼포머 점장 교육과정]의 수료식이 열렸다.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 첫 교육으로 30명의 교육생이 매주 월요일 오전10~오후 5시[7시간] 동안 4주에 걸쳐 외식업 점장교육에 맞는 교육을 받았다.

대구경북지회의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은 대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사업으로 교육비가 일부 지원가능하다. 해당 교육 뿐아니라 [슈퍼바이저 전문가 교육]도 올해 개강식을 앞두고 있다.

*교육일정 및 문의는 사무국 053-626-7664

7월 예정사항



제16회 대구경북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와 제일좋은전람이 주관하는 [제16회 대구 경북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7월 12일(목)~14일(토) 2박3일간 대구엑스코(EXCO)에서 200부스규모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맞는 다양한 업종(매장 설비, 블로그, SNS 마케팅 전문회사)까지 사업초기에 필요한 시설부터 홍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창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관련 전업종이 골고루 포진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대구 토종프랜차이즈관], [청년창업상담관]이 특별운영되며 치맥페스티벌로 인기있는 치킨브랜드와 대구지역 특색을 살린 외식업 브랜드의 창업상담부터 창업에 고충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법률 등의 상담은 물론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교육정보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2018년도 상반기 대구에서 열리는 첫 번째 창업박람회이기 때문에 참석한 가맹본부들도 예비창업자를 만나기 위해 박람회 특전과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018년 대구·경북 동호회 활동

대구경북지회는 2018년 프랜차이즈 스터디 모임, 봉사회, 산악회, 골프회를 운영한다. 각 동호회 활동은 매달 진행되며 주기적인 모임으로 회원사간의 친목도 모는 물론 협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이번 프랜차이즈 스터디 모임은 첫 시작으로 아침시간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내용을 주제로 토론탐표를 진행하며 매월 2회에 걸쳐 진행된다.

부울경지회 소식

지회장 : 신영호



일본탐구, FC사업 성공전략 - 강태봉



6월 정기월례회



부산디지털대학교 MOU체결식

6월 정기월례회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는 6월 19일(화), 6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월례회에는 일본시장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노하우에 대한 주제로 (주)알지엠컨설팅 대표이자 알지엠프드아카데미 원장이신 강태봉 강사님의 <일본탐구, FC사업 성공전략>이 진행되었다.

매 월례회에서 회원사들을 위하여 유익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부울경지회의 노력 덕분에 회원사들의 강의 만족도는 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강의 역시 매우 좋았다고 한다.

7월 초에는 2018 부울경지회 하계워크샵이 준비되어있다. 하계워크샵 1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프랜차이즈 교육을 진행, <스타벅스같은 기업 키우기>의 주제로 마케팅과 가맹점 코칭 및 관계 기법에 관하여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어서 2부는 워크샵 진행 및 토크쇼가 예정되어 회원사들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어 있다.

*정기월례회 개최 : 매월 셋째주 화요일

*하계워크샵 : 7월 7일(토)~8일(일), 1박2일, 거제도펜션마을

- ▲ 일본탐구, FC사업 성공전략 - 강태봉 대표
- ▲ 6월 정기월례회
- ▲ 부산디지털대학교 MOU체결식

한국프랜차이즈協, '제32기 연세대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식 동문들 환영 속 15주 과정 이수한 31명 수료생 배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원장 이동진)과 함께 하는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 전문 교육 과정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 과정(이하 연대 FCEO 과정)'이 6월 26일 연세대 상남경영원 사이프레스홀에서 32기 과정 수료식을 갖고, 3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사진),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이동진 원장, 민순홍 주임교수, 연대 FCEO 김금자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축하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은 수료생과 동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연대 FCEO 교육과정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 CEO과정으로, 2002년 개설 후 지난 17년간 1,400여명의 동문을 배출했다"고 그간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동문들이 현장에서 배움을 직접 실천해서 오늘날 프랜차이즈 산업이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회장은 "제32기 과정을 수료하신 여러분들이 단지 강의실에서의 배움에 그치지 말고, 과거 관행을 과감하게 깨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 실천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인이 되어줄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 출범이후 민간부문 중 가장 먼저 개혁대상으로 꼽히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으며, 연일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비난의 포화를 맞았다"고 되돌아본 뒤, "많은 산업인들이 뼈를 깎는 자정노력에 동참해주어 큰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여전히 사방으로부터 자정과 혁신의 본격적인 성과를 요구받고 있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협회는 하반기부터 자정실천안의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동문들이 시대적 요구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여 프랜차이즈산업이 국민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32기 과정은 지난 3월22일 첫 수업 이래 프랜차이즈 설립·서비스 운영·재무관리 등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부터 새 비즈니스모델 전략까지 많은 경영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제33기 과정은 가을학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육장 세미나실 대관

최적의 교육/세미나 장소

협회 내에서도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교육, 세미나에 있어서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최적의 접근성

서초역 1번 출구 2분거리에 위치하여 가장 접근성이 좋은 교육장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비즈니스 세미나, 간담회, 설명회 등의 공간을 대여하길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 직원 교육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을 찾으시는 인사 총무 담당자
- 프로그램 설명, 입시 설명회, 면접 설명회 등 적당한 장소를 찾으시는 교육/채용업 관계자

교육장 안내

- 희망실: 70~90명 / 창조실: 30~40명
- 빔프로젝트, 게시판, 유무선 마이크, 이동식 화이트 보드 (장비대여 가능)
- 휴게실,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예약 대관 (2주전), 기본 2시간 신청 (협회 회원사 할인혜택)
- 지하철(2호선 서초역), 버스 541,740, 서초21, 3200, 9100, 9300 (주차 불가, 서초역 주변 공영 주차장 활용)

문의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육사업팀(070-7919-4147)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신뢰의 가치로 성장을 함께 나눕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월헌빌딩 2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7 ~ 8월 교육 일정 안내

자세한 커리큘럼 및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 www.edukfa.or.kr 및 협회 홈페이지 www.ikfa.or.kr 참조 바랍니다.

2018
7

교육명	[재직자 무료교육]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예방 가맹사업법		
기간	7월4일(화)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15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대상: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목적: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 능력 익히고 불공정거래행위 주요 유형 사례 분석을 통한 갈등해결방법 수립 능력을 함양
훈련내용: 가맹사업법 이해, 가맹계약체결/이행/종료관련법률, 갈등해결 방법 및 판례분석

2018
7

교육명	[무료] 가맹점 노무관리 교육		
기간	7월 20일(금)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70명	비용	무료교육

교육대상: 가맹본사 임직원, 가맹점주, 예비창업자 등
목적: 근로기준법에 대한 소개와 사례,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가맹점의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인식개선
훈련내용: 전자(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활용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노동사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4인 이하 사업장의 차이,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등

2018
8

교육명	[무료] 가맹점 노무관리 교육		
기간	8월 24일(금)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70명	비용	무료교육

교육대상: 가맹본사 임직원, 가맹점주, 예비창업자 등
목적: 근로기준법에 대한 소개와 사례,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가맹점의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인식개선
훈련내용: 전자(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활용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노동사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4인 이하 사업장의 차이,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등

2018
8

교육명	[재직자 무료교육] 마스터프랜차이즈		
기간	8월29일(수)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15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교육대상: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
목적: Master Franchise Business협상의 A-Z까지 학습하여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능력 제고
훈련내용: 마스터 프랜차이즈 이해, 마스터 프랜차이즈 성공 실패 사례, 해외 상표권 등록 및 분쟁 사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및 분쟁 사례

06

- 01일** _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조사 산자부 미팅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 착수회의
코리아세일페스타(KSF) 홍보 회의
김치협회 협의체
- 05일** _ 소나회 3차 라운딩
서울시 에너지절감 제안 회의
- 07일** _ [컨소시엄] FC브랜드사업성분석 2차(1)-출장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담당자 미팅
[노무교육]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교육-26회차
- 08일** _ 오전 9시~ 10시
서울시 에너지절감제한회의
박람회 법률 자문(김선진 변호사)
코리아세일페스타(KSF) 업무 협의
- 09일** _ 제14회 외식경영관리사 시행
- 10일** _ [노무교육] 출장교육-27회차
- 11일** _ [컨소시엄] FC슈퍼바이징 5차(1)-출장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 연구사업 설명회(1차)
식약처-프랜차이즈-편의점협회 MOU(협회장-식약처장)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착수보고
- 12일** _ 중기부 국장 방문
연대 FCEO 조찬 포럼(협회장 참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안 하위법령 검토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 연구사업 설명회(2차)
[노무교육] 대구경북지회 출장교육-28회차
- 14일** _ [컨소시엄] FC브랜드사업성분석 2차(2)-출장교육
2018 춘계 협회 포럼 및 경영학회 학술대회
제23기 최고전문과과정 수료식
[노무교육] 출장교육-29회차
- 15일** _ [노무교육] 출장교육-30회차
2018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춘계학술세미나(협회장 참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 연구사업 설명회(3차) 및 연구진 회의
6월 산악회 경기 등반대회(북한산)
- 16일** _ 제35기 슈퍼바이저 입학식

- 18일** _ [컨소시엄] FC슈퍼바이징 5차(2)-출장교육
응저협 손해배상 대책 간담회(법무법인 세종)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사업 관련 회의
- 19일** _ [컨소시엄] FC가맹점위생안전관리 1차
중소기업대전 참가 업무협의
인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업무협의 회의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업체 PT
AT 해외바이어 초청상담 만찬회
- 20일** _ 31차 사회봉사(영락보린원)
중소기업판매전 참가 협의
공정위 방문 협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 연구사업 설명회(4차)
- 21일** _ [컨소시엄] FC브랜드기획 2차(1)-출장교육
[노무교육] 출장교육-리더스비전-31회차
코리아세일페스타(KSF) 참여기업 미팅
[노무교육] 협회 정기교육-32회차
- 22일** _ 산업통상자원부 방문(프랜차이즈대상-박람회 등)
[컨소시엄] FC슈퍼바이징 5차(3)-출장교육
- 25일** _ 프랜차이즈대상 상생지수활용 관련 회의
식약처 위생등급제 관련 간담회
코리아세일페스타(KSF) 홍보업체 미팅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관련 회의
제32기 연대 FCEO 과정 수료식(협회장)
서울시 녹색경제과 방문 협의
- 26일** _ [컨소시엄] FC슈퍼바이징 6차(6.27~28)
코리아세일페스타(KSF) 서울시 업무협의
- 27일** _ [컨소시엄] FC브랜드기획 2차(2)-출장교육
[노무교육] 출장교육
- 28일** _ 제26차 대한상공회의소 유동위원회(상근부회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회의
[노무교육]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교육
청와대 자영업 현황 점검 회의

하반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요 일정

- 7월 04일** _ 소나회 4차 정기 모임
- 7월 17일** _ 2018 임원 연석회의 (김보리 연수원)
- 7월 21일** _ 산악회 정기 모임
- 8월 18일** _ 산악회 정기 모임
- 9월 12일** _ 제32차 사회봉사
- 9월 15일** _ 산악회 정기 모임
- 10월 2~3일** _ 소나회 5차 정기 모임
- 10월 셋째주** _ 프랜차이즈 주간(예정)
- 제1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 제19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 10월 18일~20** _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코엑스)
- 10월 19일~20일** _ 산악회 정기 모임
- 11월 17일** _ 산악회 송년 산행
- 11월 29일_12월01** _ 제44회 프랜차이즈부산(벡스코)
- 12월 13일** _ 2018 송년회

번호	상호	영업표지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
1	치요남치킨	치요남치킨	치킨	20180420	2018-05-02
2	컬리브라운	컬리브라운	이미용	20180421	2018-05-02
3	(주)브이엔케이코퍼레이션	브이카페	커피	20180422	2018-05-02
4	오독에프앤씨	오도쿠이	기타 외식	20180423	2018-05-03
5	오독에프앤씨	하와이안바베키	기타 외식	20180424	2018-05-03
6	오독에프앤씨	알로하바베키	기타 외식	20180425	2018-05-03
7	더블유엠산격점	더블유엠에스테틱	두피센터 이미용	20180426	2018-05-03
8	몬스터에일	몬스터에일(MONSTER ALE	피자	20180427	2018-05-03
9	일공공코리아	일공공키친	기타 외국식	20180428	2018-05-03
10	헝그리브라더스	헝그리브라더스	서양식	20180429	2018-05-03
11	팜테이블	팜테이블	서양식	20180430	2018-05-03
12	(주)700화덕	700화덕삼겹	한식	20180431	2018-05-04
13	(주)쭈노에프앤씨	국민맥주	치킨	20180432	2018-05-04
14	(주)길영에프앤씨	오하이피자	피자	20180433	2018-05-04
15	엥클스보라카이	엥클스보라카이	주점	20180434	2018-05-04
16	더아무진돼지	더아무진돼지	한식	20180435	2018-05-04
17	(주)황당한에프앤씨	황당애장어	한식	20180436	2018-05-04
18	드림브라더(주)	삼겹더하기	한식	20180437	2018-05-04
19	(주)더바움코리아	더바움(The BAUM	커피	20180438	2018-05-04
20	(주)아임홈팩토리	아임홈	커피	20180439	2018-05-04
21	(주)이루미	빨래통	세탁	20180440	2018-05-04
22	(주)담미온에프앤씨	담미온	한식	20180441	2018-05-04
23	(주)소라레호텔&리조트 (SOLAREHOTELSANDRESORTSCO.,LTD.)	치산호텔(CHISUN HOTEL	숙박	20180442	2018-05-04
24	DCT컴퍼니	술바다	주점	20180443	2018-05-04
25	좋은세상협동조합	생활애	종합소매점	20180444	2018-05-04
26	(주)팬아시아다인힐	팬아시아 익스프레스	기타 외국식	20180445	2018-05-09
27	피스스타키친(PISTARKITCHEN)	피스스타키친(PISTAR KITCHEN	피자	20180446	2018-05-09
28	스테이크삼겹	1005고릴라스테이크삼겹	한식	20180447	2018-05-09
29	픽미픽미아이스	픽미픽미아이스크림할인점	아이스크림/빙수	20180448	2018-05-09
30	대패장사	대패장사	한식	20180449	2018-05-09
31	홍성래특허김밥	홍성래특허김밥	분식	20180450	2018-05-09
32	(주)동행	포차플레이	주점	20180451	2018-05-09
33	(주)아트푸드	카레부리	일식	20180452	2018-05-09
34	죽발3시30분가맹본부	죽발3시30분	한식	20180453	2018-05-15
35	(주)제이투케이에프앤씨(J2KF&B)	영칼로리	한식	20180454	2018-05-15
36	(주)세광그린푸드리테일	오목집	기타 외식	20180455	2018-05-15
37	(주)코리아델로스KD	구이쟁이꾼	치킨	20180456	2018-05-15
38	(주)아이노베이션	인펜토(infento)	유아 관련(교육 외	20180457	2018-05-15
39	(주)포앤반	포앤반(PHO&BANH)	기타 외국식	20180458	2018-05-15
40	(주)씨앤씨세오파트너스	삼육가갯	한식	20180459	2018-05-15
41	(주)원스에프앤씨	포오니	기타 외국식	20180460	2018-05-15
42	(주)책임	1.1.the 3 SECTOR CAFE	커피	20180461	2018-05-15
43	(주)씨엔피코퍼레이션	Cafe. OrganicDoctor(카페 오가닉 닥터)	커피	20180462	2018-05-15
44	쏘샌드위치	SO SANDWICH	서양식	20180463	2018-05-15
45	(주)오리지널스푼(originalspoon)	릴렉스라운지	커피	20180464	2018-05-15
46	(주)오리지널스푼(originalspoon)	오스푼	서양식	20180465	2018-05-15
47	티티씨에프	광역시맥주8220	주점	20180466	2018-05-15
48	제이에스푸드(주)	크로와플	제과제빵	20180467	2018-05-15
49	(주)아르코발레노	아르코발레노 (ARCO VALENO)	기타 서비스	20180468	2018-05-15
50	(주)진스엠파워	이엠파워 근골격운동센터	기타 교육	20180469	2018-05-15
51	이베가70연탄	70연탄구이	한식	20180470	2018-05-15
52	푸드인사이트	치킨파트너	치킨	20180471	2018-05-15
53	신국떡볶이	신국 떡볶이	분식	20180472	2018-05-15
54	커피나뜨레	커피나뜨레	커피	20180473	2018-05-15
55	예술하우스타플	아랑고장구	기타 교육	20180474	2018-05-15
56	(주)마당쇠	마당쇠뿔통구이와돼지꼬리	한식	20180475	2018-05-15
57	(주)인앤아웃에프앤씨	기봉이 김밥	분식	20180476	2018-05-17
58	어조림	어조림	한식	20180477	2018-05-17
59	(주)컬투플러스	물뚫이죽	한식	20180478	2018-05-17
60	(주)벌크커피	벌크커피(BULK COFFEE	커피	20180479	2018-05-17
61	(주)클린엔제이	클린엔제이해충방제	기타 서비스	20180480	2018-05-17
62	백지컴퍼니	육등신	한식	20180481	2018-05-17
63	(주)체인지업 힐링카페	체인지업 힐링카페	기타 서비스	20180482	2018-05-17
64	오차야랩	음료(커피 외	음료(커피 외	20180483	2018-05-17
65	(주)한국에프에스	홍콩만찬	중식	20180484	2018-05-17
66	(주)임정라인	아리노마마	기타 외식	20180485	2018-05-17

번호	상호	영업표지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
67	(주)신성스마트	식스에비뉴	기타도소매	20180486	2018-05-17
68	명태골	명태골	한식	20180487	2018-05-17
69	FBFOOD에프비푸드	브라더탕수	기타 외식	20180488	2018-05-21
70	자매튀김	산청자매튀김	기타 외식	20180489	2018-05-21
71	오리엔탈101	오리엔탈101	기타 외식	20180490	2018-05-21
72	(주)루센트	그루스터디센터	기타 서비스	20180491	2018-05-21
73	침산토담	콩토담	한식	20180492	2018-05-21
74	육감죽	육감죽	한식	20180493	2018-05-21
75	(주)푸디아	cafe근대골목도나스	커피	20180494	2018-05-21
76	(주)올	올	일식	20180495	2018-05-21
77	국가대표	국가대표	한식	20180496	2018-05-21
78	(주)로스빠나데로스	로스빠나데로스	제과제빵	20180497	2018-05-21
79	칭찬	츠츠허허	중식	20180498	2018-05-21
80	(주)네이버푸드	셰프런(Chef Run	서양식	20180499	2018-05-21
81	더화통	화통 500℃	한식	20180500	2018-05-21
82	(주)케이컴퍼니	PIGMENT(피그먼트)	의류/패션	20180501	2018-05-21
83	(주)제이이글로벌	나이쏘이(NAISOI)	기타 외국식	20180502	2018-05-21
84	일락	일락	일식	20180503	2018-05-23
85	(주)씨씨컴퍼니	키하아	일식	20180504	2018-05-23
86	키하아미포점	키하아	일식	20180505	2018-05-23
87	데일리심쿵라이프	#심쿵유발	커피	20180506	2018-05-23
88	홍은이	홍은이 닭지리	한식	20180507	2018-05-24
89	로드다이닝(주)	이태리벤도	서양식	20180508	2018-05-24
90	(주)피오엘교육	교육(교과	교육(교과	20180509	2018-05-24
91	(주)심플맨	이태리상회	기타 외식	20180510	2018-05-24
92	(주)고피자	고피자(GOPIZZA)	피자	20180511	2018-05-24
93	(주)타이웨이	홍루이겐	제과제빵	20180512	2018-05-24
94	통부심	통부심	한식	20180513	2018-05-24
95	(주)스칸디에듀	브레인나우(BRAINNOW)	기타 교육	20180514	2018-05-24
96	찌개대장	찌개대장	한식	20180515	2018-05-24
97	우정명태	원조우정명태	한식	20180516	2018-05-24
98	(주)아라리	써니스(SUNNY'S)	패스트푸드	20180517	2018-05-25
99	스튜디오오다빈치	스튜디오오다빈치	기타 서비스	20180518	2018-05-25
100	휴링크에프씨	석쇠군 연탄불고기	한식	20180519	2018-05-25
101	(주)상건	물삼겹 불삼겹 허브마을	기타 외식	20180520	2018-05-25
102	헬로F&B	헬로피자	피자	20180521	2018-05-25
103	(주)남도푸드	남도연	한식	20180522	2018-05-25
104	(주)에스와인인터네셔널	아자부카페	기타 외식	20180523	2018-05-25
105	DKFOOD	돈카냉면&파스타	기타 외식	20180524	2018-05-25
106	(주)조은인	부르맨데이	기타 외식	20180525	2018-05-25
107	알리바바파트너스(주)	알리바바썩썩김밥	분식	20180526	2018-05-25
108	(주)장보고푸드시스템	반반한명태가	한식	20180527	2018-05-25
109	에스로드	에스로드	자동차 관련	20180528	2018-05-25
110	농업회사법인(주)태영에프앤씨	기막힌뒷고기	한식	20180529	2018-05-25
111	(주)송앤한로봇릭스	클라우스(KLAUS)	기타 서비스	20180530	2018-05-25
112	돈꼬방	돈꼬방	한식	20180531	2018-05-25
113	(주)이스케이프랩	브레이크아웃 이스케이프	오락	20180532	2018-05-28
114	(주)이에이치씨	에이스홈센터	기타도소매	20180533	2018-05-28
115	(주)포크	수비드68도씨	치킨	20180534	2018-05-28
116	휴먼라이크(주)	옛날삼겹살5900	한식	20180535	2018-05-28
117	MJ푸드시스템	김밥명장	한식	20180536	2018-05-28
118	(주)고바슨	고바슨	커피	20180537	2018-05-28
119	(주)셀디	셀디(SELDY)	임대	20180538	2018-05-28
120	진국본가(본점)	진국본가	한식	20180539	2018-05-28
121	(주)푸드피플	청실홍실	한식	20180540	2018-05-29
122	브릭스	브릭스딜리버리	커피	20180541	2018-05-29
123	도담골(부평본점)	도담골	한식	20180542	2018-05-29
124	비네센구르메(주)	비네센	기타도소매	20180543	2018-05-29
125	종로푸드시스템(주)	정선애곤드레밥	한식	20180544	2018-05-29
126	스콜라몬테소리	뿌리몬테	기타 교육	20180545	2018-05-29
127	씨엘컴퍼니	히야치킨	치킨	20180546	2018-05-30
128	(주)옴50안경	옴50안경	안경	20180547	2018-05-30
129	지한에프씨(주)	육개장터	한식	20180548	2018-05-30
130	오사카엔치	오사카엔치	일식	20180549	2018-05-31
131	(주)길품에프앤씨	팔백집	한식	20180550	2018-05-31
132	(주)파란	덤앤덤ONE	기타 외식	20180551	2018-05-31

개정 2016. 06. 30

전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문화를 지향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이에 세부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신뢰를 높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회원사의 권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I. 기본강령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회원은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신뢰와 협동
회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도입 및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회원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공정 경쟁질서 확립 및 자율적 경쟁거래를 수행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회원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5. 동반성생을 통한 기반 마련
회원은 기업 및 가맹점, 고객의 상생을 통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II. 행동지침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가.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나. 회원사는 물적, 인적 시스템을 구축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다. 회원사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2. 신뢰와 협동
가. 회원사는 상호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존중한다.
나. 회원사는 어떠한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가맹점주가 되고자 하는 고객을 기만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다. 회원사는 다른 기업의 상표, 상호, 회사명, 표어 또는 기업을 식별하는 기타 표지를 모방하지 않는다.

- 라.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가맹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마.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사전공시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분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가. 회원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한다.
나. 회원사는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상도리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다. 회원사는 비방광고 및 과장광고를 지양한다.
라. 회원사는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기입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가. 회원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격 및 상품의 동질성을 앞세워 지역 간 소비자 후생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
나. 회원사는 국민들의 건전한 감시를 수용하며, 사회적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다. 회원사는 사회복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기부, 모금, 지원, 나눔 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5. 동반성생을 통한 기반 마련
가. 회원사는 산업 구성원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나. 회원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조한다.
다. 회원사는 가맹점주의 영업 운영능력을 개선·향상시키도록 권장하고 그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라. 회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의견소통을 이끌고 불평, 고충 및 논쟁의 해결에 있어서 신뢰와 선의에 입각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III. 윤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가. 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회원사 및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내에 '윤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나. 윤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 다. 회원사의 윤리강령 관련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집필한
프랜차이즈 최초의 역사교과서가 탄생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의 40년! KFA 창립 20년의 역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총망라한
프랜차이즈 바이블

대학교 경영학과 필독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필독서!
프랜차이즈 창업자의 필독서!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필독서!

부록 - 프랜차이즈 관련법
- 2016년 12월 현재, KFA 회원사 정보 수록

한시적으로 회원사 특가로 제공합니다

₩150,000 → ₩100,000

- 편찬위원장 - 연세대학교 교수(오세조), ● 위원 - 학계: 중앙대학교 교수(강병오), 숭실대학교 교수(박주영), 고려대학교 교수(최영홍), ● 위원 - 산업계: 체인정보 대표(박원후), 맥세스컨설팅 대표(서민교), 비즈니스유엔 원장(이형석), ● 연구소(원) - 창업전략연구소 소장(이경희), 창업경영연구소 소장(이상현),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장재남), ● 법률감수 - 법무법인 한림 김중무 변호사, 법무법인 헤 조은혜 변호사 ● PM - 푸드미디어그룹 김병조 대표

구입문의 KFA 여혜민 팀장(070-7919-4155) / 단체구입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FC(세계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사입니다.

<p>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p> <p>프랜차이즈 산업인의 권익 대변</p> <p>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는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법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성공 창업의 요람!</p> <p>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참가</p> <p>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부스 참가 시 10%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p>
<p>해외진출을 꿈꾸는 회원사에게!</p> <p>산업시찰 및 해외진출 지원</p> <p>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글로벌한 영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을 도와드립니다.</p>	<p>프랜차이즈 전문가를 향한</p> <p>프랜차이즈 실무교육</p> <p>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안 수시 교육, 프랜차이즈지도사, 슈퍼바이저 전문가, 외식경영관리사, 맥세스 실무형 과정 등 각종 협회 교육 수강료를 할인해드립니다</p>
<p>가맹계약서, 분쟁 조정 사항 등</p> <p>법률세무자문 및 정책 정보제공</p> <p>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또는 법률·세무 자문과 정책 정보가 필요한 회원사에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문위원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p>	<p>최고경영자(CEO)대상</p> <p>윤리준수교육 프로그램</p> <p>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윤리경영의식을 함양시켜 드립니다.</p>
<p>학사 및 석사</p> <p>장학금등 학위 과정 혜택</p> <p>협회인재육성 장학, 가천대 글로벌프랜차이즈학 석사학위과정 장학금혜택, 세종대 FC MBA과정, 서경대·신홍대 직장인 학사과정, 기타 최고위 과정(연세대 FCEO 과정 추천) 등의 등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CEO포럼, 법률 세미나 등</p> <p>포럼·세미나·컨벤션 행사 참가</p> <p>경기 프랜차이즈 전망세미나,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성공창업전략 세미나,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세미나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p>
<p>새로운 홍보 플랫폼</p> <p>홈페이지·잡지·신문·미디어 홍보</p> <p>프랜차이즈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전파! 각종 회원사 홍보, 인터뷰 및 행사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p>	<p>300명 수용 가능한</p> <p>교육장 임대</p> <p>사업설명회, 교육 및 홍보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협회 교육장을 20% 할인된 가격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기준</p>
<p>각종 규제 개선 건의</p> <p>대정부 정책 건의</p> <p>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진흥법 등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p>	<p>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정업체</p> <p>B2B 사업 혜택</p> <p>프랜차이즈협회의 지정 업체인 사무용품, 꽃배달서비스, 배달앱, 복지몰 등에서 각종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p>
<p>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의 정기적 교류</p> <p>친목 프로그램 참가</p> <p>임원사 정기 골프회, 정회원·협력회원을 위한 산악회, 체육대회, 송년회, 봉사활동 등 따뜻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p>	<p>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를 위한</p> <p>국민은행, 외환은행 대출서비스 혜택</p> <p>협회 회원사 대상 전용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최저금리 연 3.5% 16.08.08일자 신용1등급 기준) *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 차이 발생</p>

☎ 회원가입 관련문의: Tel. 02)3471-8135~8, 070-7919-4155(직통)
* KFA 홈페이지: <http://www.ikfa.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월헌빌딩 2F, B1)

정회원 협력회원

사 진 (3cmX4cm)	회 사 명	전화번호
	브랜 드 명	휴 대 전 화 (대표자)
	대 표 자 명	팩 스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이 메 일 (대표자)
회 사 주 소		
홈 페이지	업 종	
담 당 직 원	이름:	가 입 경 로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추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Tel:	
계좌 정보	<input type="checkbox"/> 개인 /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출 금 일 자 매월 <input type="checkbox"/> 5일 / <input type="checkbox"/> 14일 / <input type="checkbox"/> 28일
회 사 명		계좌 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월 납입액	금 원 (₩)	협 회 계좌 번호 국민은행 644837-04-001180 * 외환은행 630-008754-827 예금주: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MS 출금이체 약관】

-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 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은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또는 약정 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며 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 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연회비는 매년 1월에 한하여 징수하며 1월 이외 중도 가입시에는 월회비로 납부합니다.
-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 하는 날로부터 해지신청하는 시점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

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원가입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하는 날로부터 해지 신청하는 시점까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동의의 (동의 / 미동의)

[관련문의] Tel)070-7919-4155 [필수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정보공개서, 대표이력서
[협회연락처] Tel)3471-8135~8 Fax)3471-8139 mail)hm@ikfa.or.kr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월헌빌딩 2층) 우)06647

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1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Walking Towards a Brighter Future Together

홀로 걷는 '나'보다 함께 뛰는 '우리'가 밝은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미래로 도약합니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가입혜택

- 1 글로벌 프랜차이즈 진출 지원
- 2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 3 프랜차이즈 최고위 과정 "KFCEO 과정" 수강혜택
- 4 홈페이지 및 잡지 / 신문 등 미디어 홍보
- 5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권익 대변
- 6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 참가비 10% 할인
- 7 학사 및 석사, 장학금 등의 학위 과정 혜택
- 8 포럼/세미나/컨벤션 행사 참가 기획 제공
- 9 프랜차이즈 실무교육 정보제공 및 수강료 할인
- 10 법률/세무 자문/정책정보 제공 및 컨설팅
- 11 협회 교육장 임대 20% 할인
- 12 각종 규제 개선 건의 및 대정부 정책 건의
- 13 B2B 서비스혜택
- 14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의 정기적 교류 기회 제공
- 15 가맹점주를 위한 은행 대출서비스 혜택

● 회원가입문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기업지원팀(직통)
070. 7919 4155

* 회원사 혜택 및 자세한 가입 절차는 협회 홈페이지(www.ikfa.or.kr)를 참조

정기구독 안내

프랜차이즈월드는 150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현장 및 활동상을 탐사 기획하고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수립에 대응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인들 상호 간에 유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회원사를 널리 알리는 협회 공식월간지입니다.

■ 전국 교보, 영풍, 알라딘, 예스24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료 안내

1년 구독료 100,000원 / 2년 구독료 160,000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전화 (02)556-7889, 팩스 (02)556-5281로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값 : 1권 10,000원 / (주)KFN애드콤 / 입금계좌 : 하나은행 389-910002-30504



광고단가 안내 *연 10회 광고시 30% 할인(부가세 별도)

구분	유형	금액	수량	크기 (가로×세로/mm)
1	표 4	500만원	1면	전면컬러 226×296 (300dpi해상도의 ai,psd파일)
2	표 2	350만원	1면	
3	표 2 대면	300만원	1면	
4	표 3	300만원	1면	
5	표 3 대면	250만원	1면	
6	목차 대면	250만원	1면	
7	내지	200만원	1면	

광고, 콘텐츠, 구독 제안

*광고료 부가세별도

프랜차이즈월드

- 광고 1P 기본 200만원(내지) : 10회 게재시 30% 할인
- 콘텐츠 2P + 광고 1p : 300만원
- 월간프랜차이즈월드 월구독 1만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온라인 광고

- 배너 월50만원(연 500만원)
- 청약브랜드 기사 무제한게재 (보도자료 제공시)

창업도 온라인 광고

- 메인화면 월 30만원(연 300만원)
- 서브화면 월 5만원 (연 50만원)

프랜차이즈월드 구독시 혜택

-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기사 월1회(보도자료 제공시)
- 창업도 프랜차이즈 브랜드 노출

- 위치 서비스 - 매장위치 등록 노출(티맵 등 36개 업체사) 무료
- 알바천국 - 구인등록 무료 제공 (점프업 1일 3회)
- 직원 근태관리 어플 무료 제공
- 프랜차이즈 전용 CMS
- 상담문의 : (www.cms.kr)1600-2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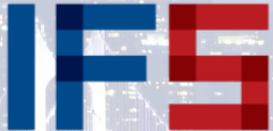
귀사의 발전과 마케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광고대행사 KFN애드콤 ☎02.556.7889

프랜차이즈부산

2018.11.29-12.1 | 벅스코



INTERNATIONAL
FRANCHISE
SHOW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가장 높은 할인율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

1. 창업 관련 모든 아이템이 모이는 프랜차이즈 전시회
2. 소자본 창업예정자부터 다점포 가맹점주까지!
실창업 수요가 높은 퀄리티 참관객 최다 방문
3. 연간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전시회 전부터 현장 그리고 사후에도 계속되는 온라인 홍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시명

제 44회 프랜차이즈 부산

기간

2018. 11. 29(목) - 12. 1(토)

장소

벅스코 제1전시장 2A홀

규모

100개사 250부스, 예비창업자 약 15,000명

주최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부산울산경남지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BUG

주관

coex Reed Exhibitions®

전시품목

외식 / 도소매 / 서비스 / 유통설비 / 컨설팅 등

참가문의 ▶ IFS 프랜차이즈 부산 전시 사무국

Tel: 02-6000-1564, 1562, 1565

Email: ifs_info@naver.com